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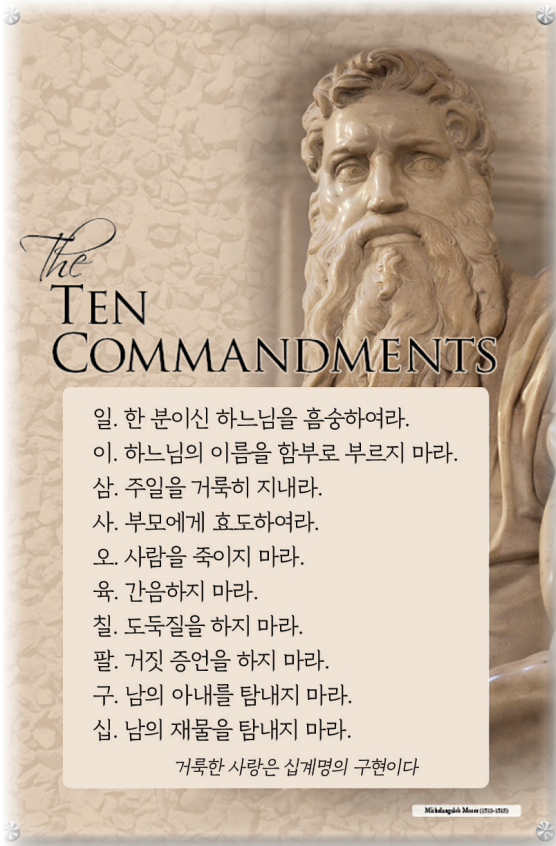
지극히 거룩한 묵주기도



짧은 태아묵주

목격증인 모린 스위니-카일에게 주신 메시지

십 계 명



사랑은 참고 기다립니다.
사랑은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고
자기 이익을 추구하지
않으며
성을 내지 않고
양심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에
기빠하지 않고
진실을 두고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 주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어 냅니다.
(1 코린 13:4-7)

“내가 너희에게 살아가면서 따르라고 요구하는 법규들 곧, 나의 계명들과 거룩한 사랑에 대한 설명(1코린 13:4-7)은 모든 가정에서 눈에 잘 띄는 곳에 전시되어 있어야 한다. 규칙을 모른다면 어떻게 그것을 지킬 수 있겠느냐?” (하느님 아버지 / 2018년 1월 3일)

“영혼이 나의 계명들에 순종하면 할수록, 나의 신성한 뜻 안에서 사는 데 더욱 헌신하게 된다. 나의 ‘계명들에 대한 순종’이 곧 나의 ‘신성한 뜻’이다. 이것은 거룩한 사랑의 실현이다. 나의 계명들을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너희는 이 계명들을 반드시 삶으로 실천해야 한다. 이것이 천국으로 가는 너희의 열쇠다. 영혼이 나의 계명들을 삶으로 실천하면 할수록, 그는 더욱더 거룩해진다.” (하느님 아버지 / 2021년 8월 1일)

목 차

거룩한 사랑의 피난처이신 마리아 상본.....	4
---------------------------	---

지극히 거룩한 묵주기도

시작 기도.....	5
마침 기도.....	8
태아 낙태 종식을 위한 묵상.....	10
예수님과 성모님께서 주신 묵상.....	14
성모님께서 주신 거룩한 사랑의 완덕을 청하는 묵상.....	26
성모님께서 주신 묵상.....	29
미카엘 대천사께서 주신 묵상.....	32
9/11 테러 직후 모린의 수호천사가 주신 묵상.....	35
하느님의 신성한 뜻에 대한 묵상.....	38

부록 I

태아 묵주.....	43
------------	----

부록 II

하나되신 성심의 짧은 묵주기도.....	46
낙태 종식을 위한 짧은 태아 묵주기도.....	49
비통한 예수 성심에 대한 신심.....	51

부록 III

양심 성찰에 관한 메시지.....	55
매일 하루의 삶을 돌아보는 양심 성찰.....	뒷표지

거룩한 사랑의 피난처이신 마리아



**신앙의 보호자이며 거룩한 사랑의 피난처이신 마리아여,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지만, 사탄은 ‘거룩한 사랑의 피난처이신 마리아여,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라는 이 기도 앞에서 달아날 것이다. 이 칭호는 그 자체가 하나의 영적 피난처다. 너희가 이 작은 화살기도를 더욱 꾸준히 바칠수록 나는 너희를 내 성심 안으로 더 깊이 데려갈 것이다. 이 기도가 영원히 너희 입술 위에 머물게 하여라.” (거룩한 사랑의 피난처이신 마리아 / 1997년 5월 15일)

지극히 거룩한 묵주기도



성호경

○ 성호경을 바치며,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기도할 준비를 합니다.

◎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시작 기도

◎ 신앙의 보호자이며 거룩한 사랑의 피난처이신 마리아와 마귀들의 공포이신 요셉이여, 지금 기도를 시작하며 청하오니, 저희와 함께 기도해 주시고,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 저는 지금 이 순간 전 세계에서 바쳐지고 있는 모든 기도예 저의 기도를 합하여, 또한 과거에 바쳐졌고 미래에 바쳐지게 될 모든 기도에도 합하여 바치나이다.

◎ 천상의 아버지, 제 사랑을 당신께 드리오니 제 마음으로부터 드리는 이 작은 사랑의 기도를 받으시어 당신의 신성한 사랑으로 감싸주소서. 그리하여 이 기도가 당신의 신성한 뜻의 도구가 되게 하소서.

세상의 마음이 진리를 깨우치기를 지향하며 바치는 기도

◎ 천상의 아버지, 진정한 진리의 깨우침으로 세상의 마음을 가득 채워주소서. 모든 영혼이 당신 앞에서의 자신의 영혼 상태를 겸손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각 영혼에게 거룩한 사랑으로 회심하고자 하는 열망을 주소서. 아멘.

세상의 마음을 하나되신 성심께 바치는 봉헌기도

◎ 지극히 거룩한 삼위일체와 티 없으신 마리아 성심의 더없이 자비로운 하나되신 성심이시여, 세상의 마음을 위해 바치는 저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세상의 마음이 선과 악의 차이에 대한 진리를 깨우치게 해주소서. 각 영혼이 그들의 마음과 삶을 하나되신 성심께 봉헌하게 하시고, 이 봉헌의 결심으로 세상의 마음을 강화시

6 지극히 거룩한 묵주기도

켜 주소서. 사랑하올 하나되신 성심이시여, 간청하오니, 당신의 영감의 은총을 쏟아부어 주시어 세상의 마음을 진리와 거룩한 사랑으로 강화시켜 주소서. 이 천상이 주는 영감으로, 세상의 마음이 하느님의 뜻에 일치하도록 이끌어 주소서. 아멘.

지향

◎ 이 묵주기도를 (예: 태아 낙태 종식, 세상의 마음의 회개, 선이 악을 이기고 승리하도록) 을 위해 바치나이다.

(묵주를 하늘을 향해 들어 올리고)

◎ 천상의 모후시여, 저는 이 묵주로 모든 죄인들과 모든 민족들을 당신의 티 없으신 성심에 묶나이다.

성호를 그으며

†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마음의 회개를 위한 기도

◎ 천상의 아버지, 세상이 위기에 처한 지금 이 시대에 모든 영혼들이 당신의 신성한 뜻 안에서 평화와 안전을 찾게 하소서. 각 영혼에게 은총을 베푸시어, 당신의 뜻은 ‘현 순간 거룩한 사랑 안에서 사는 것’임을 깨닫게 하소서. 자애로우신 아버지, 각자의 양심을 비추시어, 자신이 어떻게 당신의 뜻 안에서 살지 못하는지를 깨닫게 하소서. 그리고 변화할 수 있는 은총과 시간을 온 세상에 허락하소서. 아멘.

태아 묵주기도와 함께 드리는 기도

◎ 신성한 아기 예수님, 이 묵주기도를 바치며 청하오니, 낙태죄를 저지르려는 욕망을 세상 사람들 마음속에서 없애주소서. 사탄이 사람들의 마음에 씨워놓은, 부도덕한 행위를 자유라고 여기게 하는 거짓의 베일을 벗겨주시고, 이것이 죄의 종살이라는 사실이 드러나게 하소서. 생명이 잉태된 순간부터 존중받도록 사람들의 인식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

○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밀줄 부분에서 고개를 깊이 숙인다)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흘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주님의 기도 (교황님의 지향을 위하여)

○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된 이를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모송 (세 번) (믿음, 희망, 사랑의 성덕을 구하며)

○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영광송

○ (밀줄에서 고개를 숙이고) 모든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구원의 기도

◎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모든 영혼들을 천국으로 이끌어 주시며, 특히 당신의 자비를 가장 필요로 하는 영혼들을 돌보소서.

태아를 위한 기도

◎ 예수님, 태아들을 보호하시고 구하소서. 아멘.

마침 기도

성모찬송

◎ 모후이시며 사랑이 넘친 어머니, 우리의 생명, 기쁨, 희망이시여, 당신 우러러 하와의 그 자손들이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나이다, 슬픔의 골짜기에서. 우리들의 보호자 성모님, 불쌍한 저희를 인자로운 눈으로 굽어보소서. 귀양살이 끝날 때에 당신의 아들 우리 주 예수님 뵈게 하소서. 너그러우시고 자애로우시며, 오! 아름다우신 동정 마리아님.

○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 기도합시다.

◎ 하느님, 외아드님이 삶과 죽음과 부활로써 저희에게 영원한 구원을 마련해 주셨나이다.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함께 이 신비를 묵상하며 묵주기도를 바치오니, 저희가 그 가르침을 따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티 없이 깨끗하신 마리아 성심을 여는 열쇠 (약속과 은총은 p.54 참조)

◎ 오, 저희의 신앙의 보호자이신 마리아여,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랑하올 당신 아드님께 간구하여 주시어, 그분의 거룩한 손으로 저희의 신앙을 받아주시고 그분의 상처 속에 숨기시어 모든 악으로부터 보호하게 하소서. 아멘.

○ 교황님의 지향과 복지를 위하여 주님의 기도와 성모송과 영광송을 바치나이다.

◎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 믿지 않는 이들에 대한 보속으로 주님의 기도 세 번과 영광송 세 번을 바치나이다.

◎ 주님의 기도 (세 번)

◎ 영광송 (세 번)

○ 사제직이 신앙의 전통을 회복하도록, 또한 회심하지 않은 모든 이를 위하여 성 요셉과 함께 마리아의 티 없으신 성심을 통하여 예수 성심께 이 묵주기도를 바치 나이다. 저희를 거룩한 사랑의 겸손한 도구로 만들어 주소서. 마리아여, 저희의 신앙을 보호해 주소서.

- | | |
|------------------|------------------|
| ○ 프라하의 아기 예수님, | ●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
| ○ 비통한 예수 성심이시여, | ●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
| ○ 과달루페의 성모 마리아여, | ●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

- 거룩한 사랑의 피난처이신 마리아여,
●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 신앙의 보호자이며 모든 성덕의 옹호자이신 마리아여,
●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 진리의 옹호자이며 마귀들의 공포이신 성 요셉이여,
●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 | | |
|-------------------|------------------|
| ○ 성 미카엘, | ●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
| ○ 아기 예수의 성녀 데레사, | ●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
| ○ 성 요한 비안네, | ●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
| ○ 성 토마스 아퀴나스, | ●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
| ○ 비엘트렐치나의 성 비오, | ●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
| ○ 포레스의 성 마르티노, | ●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
| ○ 교황 성 요한 바오로 2세, | ●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
| ○ 가브리엘 가나카 대주교, | ●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

○ 거룩한 사랑의 피난처이신 마리아께 기도하나이다.

◎ 신앙의 보호자이신 마리아여, 거룩한 사랑의 피난처이신 당신의 티 없으신 성 심 안에 저의 신앙을 보호해 주소서. 당신 아들 예수 성심과 일치한 당신 성심의 피난처 안에서 저의 신앙을 모든 악으로부터 보호주소서. 아멘.

†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태아 낙태 종식을 위한 묵주기도 묵상

(생명 사제회)

* 낙태 종식을 위한 지향으로 묵주기도를 바칠 때 각 단마다 성모님께서 요청하신 다음의 지향들을 바칠 수 있습니다 (2011년 6월 4일 성모님 메시지 참조):

- 1단: 태어나지 않은 아기들에 대한 성모님의 보호를 청하며
- 2단: 낙태 산업에 종사하는 모든 이들과 낙태를 고려하고 있는 모든 어머니들을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시기를 청하며
- 3단: 낙태를 지지하는 모든 이의 회심을 위해서
- 4단: 낙태를 지지하는 정부 지도자들을 위해서
- 5단: 낙태를 반대한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는 모든 종교 지도자들을 위해서

<환희의 신비>

제 1단. 마리아께서 예수님을 잉태하심을 묵상합시다.

천사의 인사를 받으신 마리아는 몹시 당황하셨지만, 하느님의 뜻에 순종하시며 기뻐하셨습니다. 임신으로 불안해 하는 사람들이 하느님의 뜻에 내맡기는 은총을 얻도록 기도합시다.

제 2단. 마리아께서 엘리사벳을 찾아보심을 묵상합시다.

세례자 요한은 어머니의 태 안에서 즐거워 뒹눴습니다. 사람들이 ‘낙태는 세상에 태어날 수도 있는 아이들에 관한 것이 아니라 이미 태중에 살아 있고 자라고 있는 아이들, 죽임을 당하도록 계획된 아이들에 관한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제 3단. 마리아께서 예수님을 낳으심을 묵상합시다.

하느님도 어린아기로 태어나셨습니다. 왕께서 아주 작은 갓난아기로 태어나셨던 것처럼, 사람의 위대함은 크기에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낙태될 위기에 처한 아주 작은 아기들에 대한 편견을 종식시키기 위해 기도합시다.

제 4단. 마리아께서 예수님을 성전에 바치심을 묵상합시다.

아기 예수님은 하느님께 속하시므로 성전에 봉헌되었습니다. 아기들은 부모나 정

부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그들도 우리도 모두 하느님께 속합니다.

제 5단. 마리아께서 잃으셨던 예수님을 성전에서 찾으심을 묵상합니다.

소년 예수님은 하느님이시기에 지혜로 가득 차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생명의 존엄성에 관한 예수님의 가르침에 담긴 지혜를 깨닫도록, 그리고 그 가르침은 의견이 아니라 진리임을 이해하도록 기도합니다.

<빛의 신비>

제 1단. 예수님께서 요르단 강에서 세례 받으심을 묵상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하느님 아버지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우리 모두는 세례를 통해서 하느님의 자녀가 되도록 초대받았습니다. 태아들이 보호되고 태어나서 세례로 그리스도교 공동체의 일원이 되도록 기도합니다.

제 2단. 예수님께서 가나에서 첫 기적을 행하심을 묵상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나에서 첫 기적을 행하시어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새로운 한 쌍의 부부는 포도주로뿐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으로 축복을 받았습니다. 주님께 대한 확고한 믿음과 새 생명의 선물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아름다운 결혼생활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제 3단. 예수님께서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심을 묵상합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예수님 공생활의 이 첫 말씀을 낙태죄를 범한 모든 이들이 알아듣도록 기도합니다. 그들이 주님께서 통회하라고 부르고 계시는 것과, 생명을 주시는 회개를 체험하도록 부르고 계심을 깨닫도록 기도합니다.

제 4단. 예수님께서 거룩하게 변모하심을 묵상합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에서 변모하시고, 사도들은 그분의 영광을 봅니다. 모든 백성의 시각이 바뀌어, 인간의 생명은 하느님 영광의 반영이라는 것을 깨닫도록 기도합니다.

제 5단. 예수님께서 성체성사를 세우심을 묵상합니다.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주는 내 몸이다.” 성체성사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를 가르쳐 줍니다. 그들 자신을 위해 갓난아기를 희생시키는 부모가 되기보다 오히려 그들이 갓난아기를 위해 희생할 수 있는 부모가

되도록 기도합니다.

<고통의 신비>

제 1단.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땀 흘리심을 묵상합니다.

낙태하려는 유혹으로 몸서 괴로워하는 부모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들에게 다른 방법이 있다는 좋은 소식이 전해지도록, 그리고 그들이 받을 수 있는 도움을 잘 이용하도록 은총 내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제 2단.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매맞으심을 묵상합니다.

그리스도의 살점이 채찍질하는 사람들의 기구에 의해 찢겨져 나갔듯이, 엄마 태중에 있는 아기들의 몸도 낙태 시술자의 기구에 의해 찢겨집니다. 낙태 시술자들이 이러한 아기 살인 행위를 회개하도록 기도합니다.

제 3단.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가시관 쓰심을 묵상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가시에 머리를 찢리는 아픔의 고통을 당하셨고, 그 고통을 침묵 속에 받으셨습니다. 낙태된 아이들의 부모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 중 많은 사람이 결코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한 것에 대해 깊은 슬픔과 후회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건 대단한 일이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 때문에 침묵 속에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제 4단.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심을 묵상합니다.

예수님께서 사형선고를 받으신 것은 악한 사람들의 권력 때문이 아니라 선한 사람들의 침묵 때문입니다. 침묵은 언제나 압제자를 도와줄 뿐 절대로 희생자 편이 아닙니다. 우리가 앞으로 낙태에 대하여 절대로 침묵하지 않고 아기들을 죽음에서 구하자고 거리낌없이, 분명하게 말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제 5단.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박혀 돌아가심을 묵상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을 생각할 때, 소위 ‘합법적인’ 낙태 시술을 받다가 죽은 많은 여자들을 기억하고, 그들을 위하여 용서와 자비를 청합니다. 그들을 기억함으로써 다른 여자들을 이 비극적인 잘못으로부터 구해주시도록 기도합니다.

<영광의 신비>

제 1단.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묵상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당신의 부활로 죽음의 힘을 물리치셨으니, 낙태의 힘도 물리치실 것입니다. 생명을 위한 싸움의 결과는 이미 생명의 승리로 결정되었습니다. 모든 생명 옹호론자들이 이 승리를 우리 사회의 모든 분야에 전파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제 2단. 예수님께서 승천하심을 묵상합니다.

아버지의 옥좌로 오르심으로써 그리스도께서는 태중에서 받은 우리의 인성을 하늘 높이 올리셨습니다. 인간은 쓰레기통에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 불러 올려지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세상이 이 진리를 배워서 낙태를 거부하도록 기도합니다.

제 3단.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심을 묵상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대변자이십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을 스스로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탄원해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말하지도 쓰지도 못하고, 투표도 반향도 못하며, 심지어는 기도도 못하는 태아들을 위한 보호자로 삼아주시도록 기도합니다.

제 4단.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하늘에 불러올리심을 묵상합니다.

복되신 동정 마리아께서는 하느님의 어머니이시기 때문에 몸과 영혼이 하늘로 불러 올려지셨습니다. 어머니와 아기는 하나로 일치합니다. 성모 승천은 그들이 서로에게 속한다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우리는 사회가 아기들을 죽이면서 여자들만 사랑할 수 없고, 어머니들을 돕지 않고서는 아기들을 구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왜 우리는 어머니와 아기 둘 모두를 사랑할 수 없는가?” 라는 태아 보호를 위한 질문에 마음이 움직여지도록 기도합니다.

제 5단. 예수님께서 마리아께 천상 모후의 관을 씌우심을 묵상합니다.

마리아는 온 우주의 여왕이십니다. 교회는 마리아가 가장 위대한 창조물이시며, 오직 한 분이신 하느님 다음가는 분임을 가르칩니다. 교회는 여성의 존엄성을 지지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생명 옹호론자가 된다는 것은 여성 옹호론자가 된다는 의미이며, 여성 옹호론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생명 옹호론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예수님과 성모님께서 주신 묵상

<환희의 신비>

(성모님/1986, 예수님/2000)

제 1단. 마리아께서 예수님을 잉태하심을 묵상합니다.

예수님: 하느님의 신성한 뜻에 대한 어머니(마리아)의 순명은 이 세상에서 처음으로 거룩한 사랑과 신성한 사랑을 하나로 결합시켰다.

성모님: 오랜 옛날 그날 밤 홀로 깊이 기도하고 있을 때, 어느 등불보다도 환한 빛이 나의 작은 방을 비췄다. 그 빛으로부터 선량한 기운이 감도는 하느님의 천사가 나타났다. 나를 질책하러 왔다고 생각해서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그의 온화한 말씨로 인해 그가 말하는 하느님의 은총이 나와 함께 함을 알게 되었다. 그가 전하는 메시지에 순명하여 나는 단지 ‘예’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내 기억에, 나는 아주 어릴 적부터 만사에 하느님께 순종해왔기 때문이다. 그가 내 사춘에 관하여 몇 마디 하고 떠나자 간소한 내 방은 텅 빈 듯 적막감마저 감돌았다. 그러므로 나는 온 인류에게 삶 속에서 겸손을 다하여 하느님께 순종할 것을 청한다. 하느님께 찬미!

제 2단. 마리아께서 엘리사벳을 찾아보심을 묵상합니다.

예수님: 내 어머니는 천사가 알리는 말을 믿으셨고, 사춘을 방문하기 위해 서둘러 떠나셨다. 어머니께서는 내 아버지의 신성한 뜻을 이루기 위해 사셨다.

성모님: 천사의 메시지를 받은 후 나는 급히 사춘언니 엘리사벳의 집으로 떠났다. 여행은 매우 힘들었지만, 사춘을 만나면 천사가 말한 모든 것에 대한 확신을 얻게 될 것임을 나는 알고 있었다. 실로, 도착해서 엘리사벳에게 다가가자 그녀는 태 안의 아기가 즐거워 뒹놀았다고 말했다.

엘리사벳은 그렇게 나이가 많은데도 아기를 가졌다. 나는 그녀가 하느님으로부터 위대한 선물을 받았다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다. 성령의 힘으로 나는 앞으로 다가올 세대와 성령을 통해 지상에 도래할 하느님의 위대한 기적에 대해 진심에서 우러난 말로 이야기했다.

나의 사랑하는 백성들아, 너희가 묵주기도를 바치며 이 신비를 묵상할 때 모든 청원을 들어주실 수 있는 하느님의 위대하심에 대해 깊이 묵상하기 바란다. 하

느낌을 통해서 모든 일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고 희망에 찬 믿음으로 그분께로 오너라. 하느님께서서는 그분의 방식으로, 그분의 시간에 항상 응답하실 것이다. 찬미 예수님!

제 3단. 마리아께서 예수님을 낳으심을 묵상합시다.

예수님: 말씀이 사람이 되어 모든 사람들 가운데 거하셨고, 그 말씀은 영원하신 아버지의 명령에 의하여 태어나셨다. 육화된 말씀은 곧 하느님의 뜻이다.

성모님: 세상의 언어로 그날 밤의 환희와 경외로움을 묘사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이 기쁜 사건에 앞서 일어난 모든 일은 괴로운 사건들 뿐이었다. 여행 길은 멀고 험했으며, 가족들과 헤어졌고, 베들레헴에 도착하자 마땅한 거처도 구할 수 없었다. 그러나 천상에서 갓 내려온 내 아들 아기의 얼굴을 보자, 나는 그만 그동안 겪은 어떤 시련도 기억할 수 없게 되었다.

그분은 온전한 거룩함 그 자체였다. 그분의 현존과 함께 우리의 누추한 환경은 서서히 내 시야에서 사라져 갔다. 나는 지상 천국을 감지하였다. 그분은 왕궁에서 태어나 모든 안락을 누리도록 이 세상에 오실 수도 있었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분이시기에 그렇게 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다. 그분의 왕국은 천국에서 아버지와 함께 하는 것이었다.

성장하면서 그분은 세상과 그 쾌락은 안중에도 없이 항상 하느님 아버지의 왕국만을 바라보셨다. 그래서 나는 이 예수 탄생의 신비를 묵상하며 묵주기도를 바치는 모든 이들에게 이러한 초탈의 정신을 구하기를 간청한다. 이 은총은 실로 구원을 위해 절대로 필요한 것이다.

이 하찮은 세상 것들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진실로 내 아들이 그들의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결코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전지전능하신 그분께서는 모든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시므로, 그분을 마음 속 가장 뒷전에 놓는 사람들은 그분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께 찬미!

제 4단. 마리아께서 예수님을 성전에 바치심을 묵상합시다.

예수님: 어머니와 요셉 성인은 하느님의 뜻과 그들 위의 권위자들에게 순종하며 사셨다. 두 분은 기꺼이 전통에 따라 강복받게 하시고자 나를 성전으로 데려가셨다.

성모님: 내 갓난 아들을 성전에 봉헌했던 이 신비를 생각할 때면 만감(萬感)이

교차한다. 요셉과 나는 우리 아들 예수님이 아주 특별한 축복을 받길 원했기에 이 일이 있기 전부터 여러 날 동안 기도와 희생을 바쳤다. 그리고 적절한 때가 되자 유대인의 관습에 따라 새 몇 마리의 간단한 번제물을 가지고 성전을 향해 출발했다. 그분은 사제에게서 축복을 받으셨다.

우리가 성전 계단에 서 있을 때 시메온이라는 연로한 사람이 여러 번 우리에게 다가와 말을 걸었는데, 한번은 내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을 청해 안고는 극적인 예언의 말을 하였다. 그는 먼저 예수님을 볼 수 있게 그날까지 살게 해주신 하느님께 감사를 드렸다. 그리고는 나에게 내 영혼 역시도 예리한 칼에 찔릴 것이라고 말했다. 나는 즉시 그가 무엇에 대하여 말하는지 깨달았다. 왜냐하면 내 남은 생애 동안 짊어질 십자가는 바로 예수님의 앞날에 닥칠 일들을 안다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나는 예수님이 잔혹한 죽음을 당할 것과 내가 그것을 목격하게 될 것을 알고 있었다. 나는 그분의 어두운 시간이 그분의 부활로 밝혀질 것을 알았다. 동시에 나는 내 팔에 안겨 있는 그분이 인류를 구원하실 것을 알았기에 슬프고도 평화로웠다. 나는 신성한 아드님을 보살피며, 이 모든 일을 깊이 생각하면서 마음 속에 간직하였다.

요셉과 나는 그날에 있었던 일을 조용히 생각하면서 귀향길에 올랐다. 요셉은 나의 두려움이 진정되기를 기다렸다가 시메온이 말했던 것을 나중에 조심스럽게 설명해 주었다. 그러나 나는 하느님이 주신 지혜로 나의 아들처럼 나 역시 참으로 고통을 겪게 될 그날이 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그것은 내가 33년 동안 견뎌야 할 십자가였다.

제 5단. 마리아께서 잃으셨던 예수님을 성전에서 찾으심을 묵상합니다.

예수님: 내 가슴 속에서 타오르는 신성한 사랑의 불이 나로 하여금 성전에 남아 말하고 가르치도록 하였다. 나는 신성한 사랑으로 불타올랐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었다.

성모님: 예수님이 열 두 살 되던 해에 요셉과 나는 축제 관습에 따라 그분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우리뿐 아니라 많은 친척, 친지 들과 더불어 함께 여행을 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나는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을 일행 가운데서 찾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그분이 한 구석에서 자고 있거나 아니면 사촌이나 친지들에게 하느님 아버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을 거라고 믿고 있었다.

시간이 지나도 예수님을 찾지 못하자 나는 점점 더 안절부절 못하게 되었다. 요셉은 그분이 예루살렘에 남겨졌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자 즉시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기로 결정했다. 돌아가는 데만도 여러 날이 걸렸다. 뜨거운 열기가 우리의 괴로움을 가중시켰다. 예루살렘이 가까워오자 요셉은 내 아드님이 가장 좋아했던 성전부터 먼저 찾아보자고 말했다.

때는 늦은 오후였으며, 이미 그림자가 길게 드리우고 있었다. 우리가 성전의 거대한 돌계단에 올라섰을 때, 나는 큰 평화를 느꼈다. 우리는 거대한 석실을 통해서 울려 나오는 그분의 목소리를 계단 꼭대기에서 들을 수 있었다. 요셉은 여러 학자들 가운데 서서 오래 전에 살았던 한 예언자의 문헌들에 대하여 심오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그분을 발견하였다. 그분이 어린 손으로 다시 나의 손을 잡았을 때, 내 마음은 기쁨에 넘쳤다.

우리는 걱정을 많이 했다고 그분께 말했다. 예수님은 자신이 아버지의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느냐고 되물으셨다. 그 후로 몇 년 동안 나는 이것을 곰곰이 되새겼다. 그렇다. 예수님께서서는 아버지의 일을 시작하시려 하고 있었다. 그러나 아직 때가 아니었다. 하느님을 향한 주체할 수 없는 큰 사랑 때문에 예수님은 그분의 무한한 지식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것을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던 것이다. 그날 일어난 일은 사랑의 행위이지 불순종의 행위가 아니었다.

예수님은 요셉과 나와 함께 우리의 초라한 집으로 돌아오셨다. 그분은 우리에게 순종하지 않으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으며 매사에 겸손하셨다. 그분은 우리의 주의깊은 보살핌 속에서 성숙하게 자라셨다.

<빛의 신비>

(예수님 / 2002년 11월 2일)

제 1단. 예수님께서 요르단 강에서 세례 받으심을 묵상합니다.

예수님: 나는 공생활을 시작하려 할 때 요르단 강에서 세례를 받았다.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나에게 내려왔다. 오늘날 하늘이 다시 한번 열리고 있다. 이번에는 사람들의 마음을 사랑의 오순절로 빠져들게 하려고 하느님 사랑의 불길이 세상에 쏟아져 내리고 있다. 이 불길을 전파하는 것을 너희 각자의 사명으로 삼아라.

제 2단. 예수님께서 가나에서 첫 기적을 행하심을 묵상합니다.

예수님: 어머니께서는 당신 성심에 들어온 청원을 내 성심에 갇다 주시지 않는 것

이 없다. 어머니께서는 매사에 있어 너희의 중재자이며 보호자이시다. 너희가 필요한 것을 기도로 어머니께 청하면, 어머니께서는 그 기도에 당신의 기도까지 합하여 나에게 주신다. 내가 혼인 잔치에서 행한 이 기적은 진실로 우리 성심이 하나로 결합되어 있다는 표징임을 깨달아라.

제 3단. 예수님께서 하늘 나라를 선포하심을 묵상합시다.

예수님: 나의 자비와 사랑은 하나다. 그것은 신성하고 완전하고 영원하며,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 내 사랑과 자비를 신뢰하는 영혼은 내가 용서해 줄 수 있는 사람이다. 천국은 내 사랑과 자비를 믿는 마음에서 시작된다. 그것은 회개와 시작이며, 나의 승리다.

제 4단. 예수님께서 거룩하게 변모하심을 묵상합시다.

예수님: 영광스런 변모의 기적이 준 기쁨은 사도들의 믿음을 확고히 하기 위함이었다. 예를 들어 이곳 거룩한 사랑의 선교회(Holy Love Ministries)와 같이, 내 어머니의 믿을 만한 발현지에서는 메시지들을 뒷받침하는 기적이 많이 일어난다. 무모하게도 나의 육체적인 발현을 의심하는 사람들은 변모 사건 때 내 양 옆에 나타났던 모세와 엘리야의 발현도 의심해야 할 것이다. 믿음을 가져라.

제 5단. 예수님께서 성체성사를 세우심을 묵상합시다.

예수님: 첫 성체성사 때 내 몸과 피를 주었듯이 오늘날에도 세계 곳곳에서 바치는 미사마다 계속해서 내 몸과 피를 주고 있다. 성체성사는 우리의 하나된 성심의 심방들을 통과하는 여정에서 힘이 되어 준다. 너무나 자주 많은 사람들이 내 사랑과 자비에 대해 무관심하고, 성당 안에서조차도 나를 한쪽으로 제쳐두고 무시한다. 부당하게 나를 받아모시는 자들로부터 나는 모욕을 당하고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 심지어는 사제들까지도 무심하게 나를 받아 모신다. 성체성심에 대한 모독을 보속하는 마음으로 이 신비를 묵상하여라.

<고통의 신비>

(성모님/1986, 예수님/2000)

제 1단.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땀 흘리심을 묵상합시다.

예수님: 내가 동산에서 피땀을 흘린 것은 자기 자신의 구원을 거스르는 선택을 고집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었다. 나는 내 희생에도 불구하고 지옥으로 떨어지

는 수많은 영혼들을 보았다.

성모님: 지상에 있는 동안 내 신성한 아드님이 동산에서 고뇌하고 계실 때 곁에 없었던 나는, 죽음이 임박했다는 생각으로 그분이 커다란 번민에 빠져 계신 것을 알지 못했다. 그러나 나는 그분의 어머니로서 나의 전 존재가 소진되는 절박한 슬픔을 온 마음으로 느꼈다. 생애의 마지막 몇 달 동안 그분이 자신에게 닥쳐올 불의에 대해서 자주 생각하신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었다.

이제 천국에서 나는 모든 것을 알고 있기에, 그 당시에 일어났던 사건들을 너희에게 들려줄 수 있다. 나의 아드님은 온 인류를 위해 겪어야 할 난폭한 죽음을 인식하시고 기도를 드릴 목적으로 열 한 명의 사도를 데리고 근처 동산으로 가셨다. 유다는 이미 그 비열한 일을 시작하려 했기에 그곳에 없었다. 사도들은 매우 지쳐 잠들어 있었고, 내 사랑하는 아드님은 기도에 몰입하셨기에 주위를 전혀 의식하지 않으셨다. 그분은 각 채찍질을 보셨으며, 어깨에 짊어질 무거운 십자가 무게를 느끼셨고, 각 근육과 신경이 못 박혀 끊어질 것을 아셨다.

그분은 그 당시뿐 아니라 미래에도 인류가 많은 죄를 범할 것을 아셨다. 그분은 전쟁과 테러 행위의 잔인성, 육체의 타락, 마음 속에 품고 있는 형제간의 증오심을 보셨다. 마침내 그분은 한때 그분을 알았으나 그분보다 세상을 택했으며 계속해서 세상을 선택할 미지근한 수많은 영혼을 보셨다. 이 순간 그분은 아버지를 부르며 고통의 잔이 지나가게 해 달라고 요청하셨다. 그러나 결국은 아버지의 뜻에 깊이 복종하면서 “제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라고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말하거니와 지상의 어느 누구도 내 아드님이 게세마니 동산에서 겪은 것만큼 큰 정신적 고통을 받은 이는 없었으며,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제 2단.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매맞으심을 묵상합시다.

예수님: 내가 매를 맞은 것은 육신의 죄를 짓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었다.

성모님: 나는 이것을 직접 목격하였다. 내 사랑하는 아드님이 병사들에 의해 뜰 안으로 끌려가셨다. 그들은 예수님을 특별히 아주 거칠게 대했다. 살이 팽팽하게 당겨져서 더 쉽게 찢어지도록 사슬로 그분의 손목을 기둥에 높이 달아 매고는 그분의 옷을 벗겼다. 예수님의 양 편에 선 병사들이 차례로 그분의 신성한 몸을 채찍으로 내리쳤다. 이때 사용된 채찍은 평범한 것들이 아니라 희생자의 살을 찢고 살점이 묻어나도록 특별히 고안된 것들이었다.

그분은 모두 합쳐서 오천 개 이상의 상처를 받으셨다. 채찍질이 끝났을 때 그분은 피바다 한가운데 서 계셨다. 그분은 스스로 몸을 가리시고 피 묻은 발자국을 남기며 끌려가셨다. 이때 그분의 머리가 탈수로 인하여 떨리고 있었다. 내가 얼마나 그분을 위로해 드리고 싶던지!

나는 그분을 보자 큰 비탄에 빠졌다. 잘 숙련된 병사들은 그분이 의식을 잃기 바로 전에 가학을 중단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서는 그때 이미 신성을 통하여 앞으로 받게 될 남은 고통을 모두 알고 계셨다. 나는 너희가 기도와 보속으로 그분을 위로하기 바란다. 고맙다.

제 3단.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가시관 쓰심을 묵상합니다.

예수님: 내가 가시관 쓰는 것을 감수한 것은 교만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위한 것이었다. 이들은 생각과 말과 행동의 중심에 자기 자신만을 두는 사람들이다.

성모님: 병사들은 내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에게 가한 잔혹한 매질로도 만족하지 않았다. 이제 그들은 그분을 조롱하고자 왕의 옷을 입혔다. 그들은 왕 중의 왕을 대면하고 있음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그들은 근처에서 자라는 가시나무로 관을 만들어 그분에게 씌웠다. 가시는 너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길었다.

그분의 왕권을 조롱하고자 그들은 예수님의 신성한 머리에 가시관을 씌우고 그분 앞에 나아가 절을 하였다. 그리고 긴 가시가 그분의 신성한 머리에 깊이 박히도록 긴 막대기로 가시관을 내리쳤다. 그러자 성혈이 얼굴로 흘러내리고 눈으로 들어가 그분의 시야를 가렸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을 몹시 사랑하셨다. 그렇다. 예수님은 당신을 고문했던 사람들까지도 깊이 사랑 하셨으며, 큰 겸손으로 모든 것을 견디셨다. 그분은 한 마디의 탄식으로 많은 천사들에게 도움을 청하실 수도 있었지만 온 인류를 위하여 겸손하게 그 고난을 택하셨다.

제 4단.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심을 묵상합니다.

예수님: 나는 내 성심 안에 죄인들을 위한 큰 사랑을 품고 십자가를 지고 갔다. 발걸음 하나 하나는 더 많은 영혼들을 위한 것이었고, 넘어짐 하나 하나는 미지근한 영혼들을 위한 것이었다. 마지막 넘어짐은 미지근한 사제들을 위한 것이었다.

성모님: 살이 찢어지고 살점이 뼈로부터 떨어져나가 쇠약해진 상태에서 내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은 이제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셔야 했다. 그분의 쇠잔한 온몸

이 떨리고 있었다. 가시관에 찔린 상처에서 끝없이 흘러내리는 피 때문에 이제 그분은 시야가 희미해지셨다. 예수님께서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실 때, 당신의 십자가 희생이 아무 의미가 없게 될 수 백만의 미지근한 영혼들의 행렬이 끝없이 지나가는 것을 보셨다고 이후 나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나 그분은 병사들의 재촉과 온 인류를 향한 영원한 사랑 때문에 계속해서 그 길을 걸어가셨다. 그분을 도우라는 명령이 다른 사람에게 내려질 때까지 예수님은 여러 번 매우 고통스럽게 넘어지셨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나는 너무나도 고통스러워 하는 내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지 않아서 그분의 눈을 쳐다볼 수 없었다. 하지만 나는 예수님께서 그것을 느끼고 계셨다고 확신한다. 예수님은 체념과 동시에 나에게 대한 연민의 표정을 지으셨다.

죄인들을 위한 이 속죄의 길에서 예수님은 여러 번 넘어지셨다. 쓰러질 때마다 그분은 기력이 점점 더 쇠잔해지셨다. 마침내 목적지에 도착하자 그분은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도 자리에 앉아 아버지께 기도를 바치셨다. 그 모든 고통을 겪으면서 그분은 놀라운 인내력을 보여주셨다.

제 5단.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박혀 돌아가심을 묵상합시다.

예수님: 십자가 발치에 내 어머니께서 계셨던 것이 나에게 십자가를 받아 안을 수 있는 힘을 주었다. 내 어머니는 자신의 십자가들을 받아 안을 수 있는 힘을 구하는 모든 이들을 위해 중재해 주실 것이다.

성모님: 그들은 예수님에게 마구(馬具)를 채워서 마치 동물처럼 끌고 다녔다. 이 마구(馬具)는 채찍질 당할 때 얻은 상처들을 더욱 악화시켰다. 많은 증오와 멸시 속에서 예수님은 거대한 십자가를 찢어진 어깨에 지고 골고타로 끌려가셨다. 그곳에 도착하여 십자가가 준비되는 동안 그분은 쇠사슬에서 풀려나 돌 위에 앉으셨다. 그분은 두 손을 짝 모아 쥐시고 간절히 도움을 구하는 양 하늘을 쳐다보셨다.

그들은 한차례 그분을 땅에 놓인 십자가 위에 드러눕힌 다음 십자가가 그분의 신성한 몸에 맞는지 맞춰보았다. 그런 다음 십자가 나무에 못 구멍을 뚫었다. 이 일이 끝나자 그들은 그분을 다시 불러 십자가 위에 눕히고 그분의 신성한 육체에 못을 박았다. 예수님께서 망치를 내려치기 전부터 타격의 고통을 느끼셨고, 그 고통은 그후로도 오래 계속되었다. 두 개의 수족이 준비된 못 구멍까지 닿지 않아 이를 조절하기 위해 그분의 팔과 다리를 관절로부터 탈구시킴으로써 예수님께서 고문 당하는 것과 같은 큰 고통을 겪으셨다.

이제 십자가가 세워졌다. 십자가는 내가 그분의 발을 만질 수 있을 정도로 그리 높지 않았다. 그러나 나는 고문으로 상한 그분 살에 손가락 하나 대어 볼 엄두가 나지 않았다. 그분이 고통스럽게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무지한 병사들이 그분의 초라한 옷 조각을 걸고 제비를 뽑았다. 그들은 너무나도 무심해서 자신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이제 하늘이 어두워지고 수많은 구경꾼들이 떠나가기 시작했다. 나의 아들 예수님은 말씀을 거의 하지 않으셨지만 하시는 말씀마다 무게가 있었다. 예수님이 사도 요한과 나에게 말씀하실 때 나를 사도 요한뿐 아니라 온 인류의 어머니로 세우고 계심을 알았고, 나는 이것을 기쁘게 받아들였다.

임종이 가까워오자, 그분은 거의 움직일 수도, 숨을 쉴 수도 없으셨다. 그분의 말씀은 아주 쉼 목소리였으나 아직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분명했다. 인류의 죄를 다 떠맡으시는 동안 그분은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음을 느끼셨다. 마침내 그분은 숨을 거두셨다. 마치 죽음을 애도하는 것처럼 이제 대지가 요동치고 신음하기 시작했다.

한 이방인이 나타나 매장을 하겠다며 그분의 시신을 내어달라고 요구할 때까지 나는 기다리고 있었다. 그분의 축 늘어진 몸이 십자가에서 내려져 내 팔에 안겼을 때 나는 슬피 울었다. 시각이 늦은 탓에 나는 그분을 원하는 만큼 오래 안고 있을 수 없었다. 사람들이 그분을 나의 팔에서 데려갔다.

<영광의 신비>

(성모님/1986, 예수님/2000)

제 1단.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묵상합시다.

예수님: 나는 내 삶과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모든 백성과 모든 민족을 위해 하늘의 문을 열었다. 오늘날 내 기도는 각 영혼이 거룩한 사랑의 메시지에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이다.

성모님: 나는 내 아들 예수님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실 것이라고 내 영혼 깊이 느끼고 있었다. 그 최초의 부활절 주일까지도 나는 여전히 성금요일의 불행에 깊이 빠져 있었고, 나의 마음은 그분의 현존을 그리워했다. 우리는 해가 뜰 무렵 일찍이 무덤을 향해 떠났다. 지난 금요일에 너무 서둘러 매장을 하였기에 몇 사람은 그분의 시신을 더 잘 보존하고자 향유를 준비해 갔다.

골고타를 지날 때 동행자들이 나를 앞질러 갔다. 나는 그분이 십자가에서 내려졌

던 자리에 잠시 멈춰 섰다. 거기엔 십자가가 세워졌던 빈 구멍 외엔 아무것도 없었다. 내 마음이 그분에 대한 그리움으로 불타올랐다.

내가 깊이 기도하고 있을 때 누군가 손을 나에게 뻗어왔다. 그것은 원수들에게 상처 입은 그분의 손이었다. 그분의 얼굴은 천상의 빛으로 빛났다. 내 눈물이 그분의 상처를 메울 때 그분은 미소를 지으시며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셨다. 그분은 단지 잠시동안만 더 머무셨다. 그분께는 아직도 완수하셔야 할 임무가 남아 있음을 나는 이해하고 있었다. 그분은 오실 때처럼 급히 사라지셨다. 무덤을 향해 계속 걷는 내 마음은 부활의 환희로 가득 차 기뻐다. 살아계신 참 하느님께 모든 찬미!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찬미! 알렐루야!

제 2단. 예수님께서 승천하심을 묵상합시다.

예수님: 나는 내 사도들과 어머니에게 세상 끝 날까지 그들과 함께 있겠다는 약속을 남기고 떠났다. 그러나 천사의 양식인 성체 성사의 신비 안에서 내가 아직도 너희와 함께 있음을 깨달아라. 이런 차림새 안의 나를 알아보아라.

성모님: 하느님의 다른 모든 기적들처럼 예수님의 승천도 조용히 이루어졌다. 거기에는 화려한 음악 연주도 눈물 어린 작별도 없었다. 우리가 베다니아 마을을 향해 가던 도중 그리스도께서 멈추시더니 우리를 돌아보셨다. 그분의 몸이 태양처럼 빛나고 그분의 다섯 상처는 하느님의 영광으로 빛났다.

그분은 손을 들어 마지막 축복을 주시고는 사랑이 넘치는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셨다. 서서히 그분은 지상으로 부터 떠오르셨다. 그분이 아버지께로 올라가실 때 구름이 그분의 발 밑으로 모여들더니 빛을 발했다. 하늘이 열릴 때 그분은 온 세상을 감싸 안으시려는 듯 두 팔을 활짝 벌리셨다.

나는 하느님 아버지께서 승리의 기쁨으로 그분을 맞이하셨음을 알고 있다. 뒤에 남겨진 우리는 그 순간 슬픔 대신 마음의 평화와 기쁨을 느꼈다. 갑자기 천상적 존재 두 명이 나타나 우리에게 남겨진 사명을 계속하라고 격려했고, 우리는 이를 실행하였다.

제 3단.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심을 묵상합시다.

예수님: 성령께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모여 있는 사도들 위에 갑자기 내려오셨다. 같은 성령께서 오늘날 너희들 마음 안에서 일하시도록 허락해 드려라. 거룩한 담대함에 너희 마음을 열어라. 지붕 꼭대기에서, 그리고 너희 마음 깊은 곳에

서부터, 거룩하고 신성한 사랑의 메시지를 선포하여라.

성모님: 사도들과 예수님의 친지들, 그리고 나 자신을 포함한 우리 모두가 커다란 방에 모여 있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이 겪으신 것과 같은 운명이 자신들에게 닥칠 것을 염려하여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 이 중에는 마음이 혼란한 사람들과 단순히 예수님의 육체적 현존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을 때 바깥 공기가 아주 조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실내 공기가 휘둘기 시작했다. 이 미풍은 곧 솔솔 부는 바람이 되어 거기 모인 사람들 사이를 스치고 지나다녔다. 이 바람에 스친 몇 사람이 잠이 든 듯 쓰러졌다. 이 성령의 바람이 각 사도들에게 닿자 불꽃 모양의 혀들이 그들의 머리 위에 나타났다. 그러자 그들은 죽은 사람처럼 바닥에 주저 앉았다.

나 역시 꽤 오랫동안 성령 안에서 잠들어 안식을 취했는데, 그때 하느님 오른편 옥좌에 앉아서 나에게 미소를 보내고 계신 내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을 보았다. 내 영혼은 그분을 향한 사랑에 너무나도 몰입하여 몸을 움직일 수조차 없었다. 우리 모두가 깨어나 정신이 들기 시작할 무렵 우리는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기로 약속하신 선물 즉, 거룩한 파라클레토스, 나의 신성한 정배시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분의 현존을 기다리며 슬퍼하던 사람들이 기쁨에 차서 일어났다. 그때까지 깨닫지 못했던 진리에 대한 지혜와 지식이 생겨나 모든 혼란이 사라졌다. 성령께서는 이제 사도들의 두려움을 없애시고 그들의 마음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그들은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 길거리로 뛰쳐나갔다. 그들이 말할 때 청중은 자신의 언어가 무엇이든 상관없이 모두 그 메시지를 알아들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 보편된 교회의 시작이었다.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찬미!

제 4단.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하늘에 불러올리심을 묵상합시다.

예수님: 내 어머니는 몸과 영혼이 하늘로 올려지셨으니, 이는 잉태되신 순간부터 어머니 성심 안에 있는 사랑에 흠이 없으셨던 까닭이다. 어머니 안에는 노여움이나 질투, 용서하지 못함이 없었다. 어머니의 성심은 하느님의 거룩하고 신성한 뜻이다. 어머니 성심 안에 있는 거룩한 사랑을 지금 이 현 순간 본받도록 하여라.

성모님: 그날 예수님의 많은 친지들과 식탁에 앉아 있을 때, 나는 가끔 그랬던 것처럼 그분이 몹시 그리웠다. 그날은 그런 감정이 어느 때보다 더 강렬했다. 내 영혼이 그분의 신성한 현존을 그리워했기에 나는 들을 수도 말할 수도 없었다. 마침

내 나는 큰 평화가 나에게 다가옴을 느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잠이 들어 이번에는 다시 깨어나지 않았다. 나의 영혼은 재빠르게 그분의 하늘 나라로 올라갔다. 그리고 나는 다시 그분 현존의 빛 속에서 기뻐할 수 있었다.

이제 내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은 순결한 내 몸이 무덤에서 썩는 것을 허락치 않으셨다. 그분은 대천사 가브리엘과 나의 사랑하는 수호천사를 불러 내 몸을 하늘 나라로 가져오라고 하셨다.

내 몸이 천사들의 날개를 타고 하늘나라로 오는 것을 보고 내 영혼은 많이 기뻐하고 행복했다. 천국의 입구에는 천사들 대신 요셉 성인과 예수님이 마중나가셨으며, 낙원의 문을 거쳐 이 순결한 지성소를 천국 안으로 가져오셨다. 그곳에서 모든 이가 찬미하는 가운데 내 몸과 영혼은 다시 하나가 되었다.

그분께서는 나에게 큰 은총과 최고의 선물을 베푸셨다. 지금 나는 세계 여러 곳에서 몸과 영혼이 함께 발현하여 화해와 평화의 메시지를, 전 인류를 위한 예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지극히 높으신 분께 모든 찬미!

제 5단. 예수님께서 마리아께 천상 모후의 관을 씌우심을 묵상합니다.

예수님: 천상의 모후 그리고 지상의 모후로서 내 어머니께서는 자녀들이 천국에 도착하기를 기다리신다. 어머니를 시중드는 수많은 천사들이 어머니 발 앞에 엎드려 절한다. 어머니께서 천국을 거니실 때 천사들이 사랑의 홀을 들으신 어머니의 팔을 부축하고, 입고 계신 망토를 들어드리면서 어머니께서 걸음을 멈추시면 살며시 어머니 둘레에 내려 놓는다.

성모님: 하느님 아버지께서 그분의 거룩한 권위로 나의 무염시태를 확고히 정하셨기에 나는 많은 은혜를 입었다. 나는 그분에게 어떠한 것도 거스르지 않는 순종하는 딸이었다. 나는 아들 그리스도에게는 티 없이 깨끗한 거처이며 사랑하는 어머니였다.

성령께서는 하느님의 계획에 기꺼이 따를 준비가 가장 잘 되어 있는 정배를 나에게서 찾으셨다. 그러므로 나의 승천 이후 하느님께서서는 큰 은총을 베푸시어 나를 하늘과 땅의 여왕으로 삼으셨다.

나는 하느님이 내리시는 모든 은총의 중재자이며 인류의 공동 구속자다. 나는 모든 인류를 지극히 사랑하는 내 아들 예수님께 인도하여 그분의 왕국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나에게 진실한 마음으로 다가오는 사람은 어느 누구도 아쉬운 것이 없게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찬미!

성모님께서 주신
거룩한 사랑의 완덕을 청하는 묵상 (1994)

<환희의 신비>

제 1단. 마리아께서 예수님을 잉태하심을 묵상합니다.

고통스럽고 티 없으신 마리아 성심이시여, 당신께서 천사에게 ‘예’라고 대답하시며 주님의 종이 되셨던 것처럼 저 또한 저를 위해 예비하신 하느님의 계획에 ‘예’라고 대답할 수 있도록 저를 거룩한 사랑의 완덕으로 이끄소서.

제 2단. 마리아께서 엘리자벳을 찾아보심을 묵상합니다.

고통스럽고 티 없으신 마리아 성심이시여, 당신께서 사촌 엘리자벳을 방문하시며 모범을 보이신 것처럼 저 또한 자비의 육체적 선행을 통해 이웃에 대한 사랑을 보일 수 있도록 저를 거룩한 사랑의 완덕으로 이끄소서.

제 3단. 마리아께서 예수님을 낳으심을 묵상합니다.

고통스럽고 티 없으신 마리아 성심이시여, 육신을 취하신 말씀인 당신 아들 예수님을 모범으로 삼아 비록 세상에서 살지만 마음은 천국에 둘 수 있도록 저를 거룩한 사랑의 완덕으로 이끄소서.

제 4단. 마리아께서 예수님을 성전에 바치심을 묵상합니다.

고통스럽고 티 없으신 마리아 성심이시여, 저를 거룩한 사랑의 완덕으로 이끄시고, 당신 아들 아기 예수님을 성전에 봉헌하셨을 때 당신과 요셉 성인처럼 저 또한 교회의 전통을 깊이 존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제 5단. 마리아께서 잃으셨던 예수님을 성전에서 찾으심을 묵상합니다.

고통스럽고 티 없으신 마리아 성심이시여, 당신 아들이 성전에서 아버지의 일을 하셨던 것처럼 저 또한 결코 하느님을 잊지 않고 부지런히 거룩함을 추구할 수 있도록 저를 거룩한 사랑의 완덕으로 이끄소서.

<고통의 신비>

제 1단.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땀 흘리심을 묵상합시다.

고통스럽고 티 없으신 마리아 성심이시여, 예수님께서 게세마니 동산에서 그러셨던 것처럼 저 또한 저의 뜻을 하느님의 뜻에 의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 저를 거룩한 사랑의 완덕으로 이끄소서.

제 2단.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매맞으심을 묵상합시다.

고통스럽고 티 없으신 마리아 성심이시여, 예수님께서 채찍질을 당하실 때 그러셨던 것처럼 저 또한 저의 뜻을 절제함으로써 오늘 하루동안 겪는 모든 ‘채찍질’을 통해 저를 거룩한 사랑의 완덕으로 이끄소서.

제 3단.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가시관 쓰심을 묵상합시다.

고통스럽고 티 없으신 마리아 성심이시여, 예수님께서 조롱 받으시고 가시관 씌움을 당하셨을 때 그러셨던 것처럼 저 또한 저의 명예를 당신께 의탁할 수 있도록 저를 거룩한 사랑의 완덕으로 이끄소서.

제 4단.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심을 묵상합시다.

고통스럽고 티 없으신 마리아 성심이시여, 예수님께서 당신 십자가를 받아들이셨던 것처럼 저 또한 거룩한 사랑으로 저의 삶 속 모든 십자가를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저를 거룩한 사랑의 완덕으로 이끄소서.

제 5단.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박혀 돌아가심을 묵상합시다.

고통스럽고 티 없으신 마리아 성심이시여, 예수님께서 당신 수난과 죽음을 통해 저희에게 몸소 보여주신 것처럼 저 또한 저 자신에 대해 죽음으로써 다른 이들을 위해 살 수 있도록 저를 거룩한 사랑의 완덕으로 이끄소서.

<영광의 신비>

제 1단.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묵상합니다.

고통스럽고 티 없으신 마리아 성심이시여, 예수님께서 무덤의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셨던 것처럼 저 또한 제 삶 속의 죄의 죽음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저를 거룩한 사랑의 완덕으로 이끄소서.

제 2단. 예수님께서 승천하심을 묵상합니다.

고통스럽고 티 없으신 마리아 성심이시여, 하느님과 이웃 사랑을 통해 제가 당신과 당신 아들과 함께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저를 거룩한 사랑의 완덕으로 이끄소서.

제 3단.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심을 묵상합니다.

고통스럽고 티 없으신 마리아 성심이시여, 제가 거룩한 사랑의 훌륭한 사도가 될 수 있도록 저를 거룩한 사랑의 완덕으로 이끌어 주시고, 제 영혼 안에 거룩한 담대함을 불어넣어 주시도록 당신 천상 정배께 청해 주소서.

제 4단.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하늘에 불러 올리심을 묵상합니다.

고통스럽고 티 없으신 마리아 성심이시여, 하느님을 제 마음속 첫째 자리에 모시어 죽음을 두려워하는 대신 죽음은 오직 천국으로 가는 과정이자 길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도록 저를 거룩한 사랑의 완덕으로 이끄소서.

제 5단. 예수님께서 마리아께 천상 모후의 관을 씌우심을 묵상합니다.

고통스럽고 티 없으신 마리아 성심이시여, 거룩한 사랑을 통해 이 땅에 당신의 티 없으신 성심의 승리를 가져오는 데 힘을 보탬 수 있도록 저를 거룩한 사랑의 완덕으로 이끄소서.

성모님께서 주신 묵상 (1995)

<환희의 신비>

제 1단. 마리아께서 예수님을 잉태하심을 묵상합니다.

지극히 고통스럽고 티 없으신 마리아 성심이시여, 거룩한 사랑인 어머니 성심의 불꽃은 어머니께서 가브리엘 천사에게 ‘아니오’ 라고 대답하시도록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지극히 복되신 동정녀시여, 저희 마음이 이 불꽃 안에 잠기게 하시고, 저희가 항상 기꺼이 하느님의 도구가 되고자 하도록 도와 주소서.

제 2단. 마리아께서 엘리자벳을 찾아보심을 묵상합니다.

지극히 고통스럽고 티 없으신 마리아 성심이시여, 가브리엘 천사가 천국에서 가져온 메시지를 믿으셨기에 어머니께서는 사촌 엘리자벳을 방문하러 여행을 떠나셨습니다. 저희의 삶도 거룩한 사랑의 메시지를 통한 믿음의 여정이 되도록 저희를 위해 빌어주소서.

제 3단. 마리아께서 예수님을 낳으심을 묵상합니다.

지극히 고통스럽고 티 없으신 마리아 성심이시여, 예수님께서 막 태어나시려던 때 어머니께서는 마땅한 거처를 찾지 못하시고 거절당하셨습니다. 저희가 어머니와 예수님께 결코 등을 돌리지 않도록 저희를 도우소서. 세상에서 예수님을 배척하고 그분께 마음을 열지 않는 이들을 위해 저희와 함께 기도해 주소서.

제 4단. 마리아께서 예수님을 성전에 바치심을 묵상합니다.

지극히 고통스럽고 티 없으신 마리아 성심이시여, 어머니께서는 전통에 대한 경의로서 갓난 아드님을 성전에 바치셨습니다. 저희가 예수님의 교회와 요한 바오로 2세를 통해 전해져 내려오는 신앙의 전통에 충실하도록 지켜주소서.

제 5단. 마리아께서 잃으셨던 예수님을 성전에서 찾으심을 묵상합니다.

지극히 고통스럽고 티 없으신 마리아 성심이시여, 어머니께서는 예수님과 삼일 동안 떨어져 계셨으며 슬픔 속에 그분을 찾아 헤매셨습니다. 사랑하올 어머니, 교회로부터 멀어진 이들이 자신이 믿음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 슬퍼하도록 저희와 함께 기도해 주소서.

<고통의 신비>

제 1단.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땀 흘리심을 묵상합니다.

지극히 고통스럽고 티 없으신 마리아 성심이시여, 예수님께서서는 하느님의 뜻을 생각하며 고뇌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에 의탁하시자 천사가 그분을 위로해 드리러 왔습니다. 저희가 삶의 십자가들을 하느님의 뜻으로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리고 저희 역시 위로를 받고 십자가들을 지고 갈 수 있는 은총을 얻을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도록 저희를 위해 기도해 주소서.

제 2단.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매맞으심을 묵상합니다.

지극히 고통스럽고 티 없으신 마리아 성심이시여, 죄 없으시고 그런 일을 당할 이유가 없으신데도 예수님께서서는 채찍질을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자신을 변호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저희가 자신의 안락만을 찾지 않고 언제나 더 큰 선익을 추구하도록 도와주소서.

제 3단.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가시관 쓰심을 묵상합니다.

지극히 고통스럽고 티 없으신 마리아 성심이시여, 예수님께서서는 사람들이 그분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조롱을 당하시고 가시관 씌움을 당하셨습니다. 하느님의 어머니시여,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저희가 용감하게 교회의 전통과 거룩한 사랑을 통한 거룩함을 지지하도록 저희를 위해 기도해 주소서.

제 4단.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심을 묵상합니다.

지극히 고통스럽고 티 없으신 마리아 성심이시여, 예수님께서서는 저희에 대한 사랑으로 십자가를 짊어지셨습니다. 사랑하올 복되신 어머니, 저희가 예수님께 대한 사랑으로 저희의 십자가들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소서. 그분의 십자가는 저희 죄의 무게 때문에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저희의 십자가들은 저희가 그것에 내맡기지 않을 때 더욱 무거워집니다.

제 5단.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박혀 돌아가심을 묵상합니다.

지극히 고통스럽고 티 없으신 마리아 성심이시여, 예수님께서서는 갈바리아에서 돌아가셨고 스스로 세상의 제대 위의 영원한 희생제물이 되셨습니다. 사랑하올 어머니, 저희는 지금 어머니와 함께 성체 안의 그분의 현존에 대한 믿음이 세상 모든 이의 마음 속에서 증가하기를 기도합니다.

<영광의 신비>

제 1단.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묵상합니다.

지극히 고통스럽고 티 없으신 마리아 성심이시여, 어머니께서는 예수님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셨을 때 기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발치에서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저희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준비로서 오늘날의 고난을 잘 견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제 2단. 예수님께서 승천하심을 묵상합니다.

지극히 고통스럽고 티 없으신 마리아 성심이시여, 사랑하옵 예수님께서서는 죄에 대한 승리를 거두시고 하느님 아버지의 오른편에 있는 그분의 자리를 취하시러 천국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어머니, 어머니와 함께 기도하오니 저희의 고향은 천국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소서. 천국은 거룩한 이들의 상속 재산이오니, 현 순간 저희의 개인 성화를 도와 주소서.

제 3단.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심을 묵상합니다.

지극히 고통스럽고 티 없으신 마리아 성심이시여, 당신의 천상 정배께 모든 은사와 모든 열매로 저희의 마음을 가득 채우시도록 청원해 주시기를 겸손되이 청하나이다. 그리고 믿지 않는 세상에서 저희가 거룩한 사랑의 충실한 사도들이 될 수 있도록 어머니께서 기도해 주시기를 청하나이다.

제 4단.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하늘에 불러 올리심을 묵상합니다.

지극히 고통스럽고 티 없으신 마리아 성심이시여, 사랑하옵 예수님께서 어머니의 지극히 순결한 육신이 죽음의 부패를 경험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기에 어머니의 몸과 영혼을 천국으로 들어 올리셨습니다. 지극히 사랑하옵 어머니, 이제는 천국에 계시는 어머니께 저희를 굽어보실 것을 청하나이다. 어머니의 보호의 망토 아래 저희의 순결을 지켜주소서. 저희의 마음이 세상으로 인해 타락하지 않게 하소서.

제 5단. 예수님께서 마리아께 천상 모후의 관을 씌우심을 묵상합니다.

지극히 고통스럽고 티 없으신 마리아 성심이시여, 어머니께서는 천국과 지상의 여왕이시나이다. 이 슬픔의 골짜기에서 저희는 진지하게 어머니께 청원하나이다. 거룩한 사랑이 모든 이의 마음을 다스리게 하시어 어머니의 티 없으신 성심의 승리의 통치가 이곳 지상에서 시작되게 하소서.

미카엘 대천사께서 주신 묵상 (1998)

<환희의 신비>

제 1단. 마리아께서 예수님을 잉태하심을 묵상합니다.

지극히 거룩한 예수 마리아의 하나되신 성심이시여, 천사가 예수님의 잉태를 알리는 순간 예수님의 아주 작은 거룩한 성심이 마리아의 티 없는 성심 안에 생겨나 거룩하고 신성한 사랑이 하나로 일치되었습니다. 저희가 거룩한 사랑에 ‘예’라고 응답함으로써 예수 마리아 두 분께 일치할 수 있도록 저희와 함께 기도해 주소서.

제 2단. 마리아께서 엘리자벳을 찾아보심을 묵상합니다.

지극히 거룩한 예수 마리아의 하나되신 성심이시여, 세례자 요한은 하나되신 성심께서 방문하시자 그의 어머니 태중에서 성화되었습니다. 사랑하올 하나되신 성심이시여, 저희가 거룩한 사랑의 길을 따라가고 있는 지금 저희를 성화시켜 주소서.

제 3단. 마리아께서 예수님을 낳으심을 묵상합니다.

지극히 거룩한 예수 마리아의 하나되신 성심이시여, 신성한 사랑께서는 초라한 장소로 세상에 내려오셨습니다. 왕께서는 구유를 그분의 왕좌로 정하셨습니다. 저희의 가장 큰 보물은 천국에 있으며 지상의 부나 권세에 있지 않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제 4단. 마리아께서 예수님을 성전에 바치심을 묵상합니다.

지극히 거룩한 예수 마리아의 하나되신 성심이시여, 예수님의 거룩한 성심은 마리아의 성심을 꿰뚫었던 지식의 칼에 거듭거듭 꿰뚫렸습니다. 저희가 당신을 위해서 거룩한 사랑을 통해 영혼들을 얻는 데 저희의 지력을 사용하도록 저희를 위해 빌어주소서.

제 5단. 마리아께서 잃으셨던 예수님을 성전에서 찾으심을 묵상합니다.

지극히 거룩한 예수 마리아의 하나되신 성심이시여, 예수님을 잃으신 마리아께서는 그분을 찾을 때까지 찾아 헤매셨습니다. 예수님, 세상에서 길 잃고 헤매는 모든 영혼이 당신과 일치할 때까지 당신을 찾도록 저희와 함께 지금 기도해 주소서.

<고통의 신비>

제 1단.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땀 흘리심을 묵상합니다.

지극히 고통스러우신 예수 마리아의 하나되신 성심이시여, 두 분은 일치하여 신성한 뜻을 받아들이셨습니다. 저희 또한 삶 속에서 신성한 뜻을 받아들이길 수 있도록, 저희가 거룩한 사랑을 통해 두 분께 매달릴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제 2단.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매맞으심을 묵상합니다.

지극히 고통스러우신 예수 마리아의 하나되신 성심이시여, 두 분은 하나가 되어 고통을 함께 겪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살이 뼈에서 뜯겨져 나갈 때 당신 어머니께서도 그 고통을 함께 겪으셨습니다. 저희도 육체적인 고통을 겪을 때 죄인들을 위해 그 고통을 봉헌할 수 있도록 저희를 위해 빌어주소서.

제 3단.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가시관 쓰심을 묵상합니다.

지극히 고통스러우신 예수 마리아의 하나되신 성심이시여, 비록 몸은 떨어져 있었지만 어머니의 성심 또한 예수님께서 당한 굴욕을 통렬하게 느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변호하지 않으신 것처럼 어머니께서도 침묵하셨습니다. 저희도 침묵 속에서 굴욕을 견뎌낼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제 4단.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심을 묵상합니다.

지극히 고통스러우신 예수 마리아의 하나되신 성심이시여, 저희가 잘못을 극복하고 다시 일어서기를 바라시는 것처럼, 십자가의 길에서 넘어진 예수님께서도 다시 일어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옷 벗김을 당하여 품위를 박탈 당하실 때 어머니께서 당신 곁을 지켜 주셨습니다. 어머니, 저희 또한 이기적인 사랑을 벗어버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저희 곁을 지켜 주소서.

제 5단.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박혀 돌아가심을 묵상합니다.

지극히 고통스러우신 예수 마리아의 하나되신 성심이시여,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실 때 예수님께서서는 당신 어머니를 저희에게 주셨습니다. 신성한 사랑께서 거룩한 사랑을 저희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어머니께서는 거룩한 사랑을 통해 저희를 다시 당신께로 이끄십니다.

<영광의 신비>

제 1단.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묵상합니다.

승리하신 예수 마리아의 하나되신 성심이시여, 예수님께서서는 죽음을 쳐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은 천국에서 하나되신 성심과 함께 하는 새로운 삶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도록 저희를 위해 빌어주소서.

제 2단. 예수님께서 승천하심을 묵상합니다.

승리하신 예수 마리아의 하나되신 성심이시여,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의 승천으로, 저희 또한 언젠가 천국을 얻게 될 것이라는 희망을 저희 마음에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예수 마리아시여, 저희가 언제나 희망찬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소서.

제 3단.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심을 묵상합니다.

승리하신 예수 마리아의 하나되신 성심이시여, 성령께서는 신성한 뜻을 통해 모든 이의 마음 속에 머무르고자 세상에 내려오셨습니다. 어머니, 당신의 티 없으신 성심은 성령의 정배이십니다. 오늘 저희의 마음을 여시어 당신의 천상 정배께서 저희를 가득 채우시고 거룩한 담대함으로 저희를 이끄시게 하소서.

제 4단.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하늘에 불러 올리심을 묵상합니다.

승리하신 예수 마리아의 하나되신 성심이시여, 마리아께서 당신의 아드님과 다시 일치하기를 애타게 바라셨기 때문에 그분의 몸과 영혼이 천국으로 들어 올려지셨습니다. 거룩한 사랑을 통해 저희도 하느님과 일치할 수 있도록 저희를 위해 빌어주소서.

제 5단. 예수님께서 마리아께 천상 모후의 관을 씌우심을 묵상합니다.

승리하신 예수 마리아의 하나되신 성심이시여, 당신의 승리는 천국에서 완성되었습니다. 저희는 당신과 함께, 거룩한 사랑을 통해 당신이 모든 이의 마음 속에서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느님의 왕국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도 임하실 것이며, 저희는 새 예루살렘에서 거룩한 사랑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9/11 테러 직후 모린의 수호천사가 주신 묵상

(2001년 9월 14일)

<환희의 신비>

제 1단. 마리아께서 예수님을 잉태하심을 묵상합니다.

복되신 어머니, 어머니께서는 당신이 치러야 할 희생과 상관없이 천사에게 ‘예’ 하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러니 저희도 매 현 순간 저희를 위한 하느님의 뜻에 ‘예’ 하고 대답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통고의 어머니, 티 없으신 마리아 성심이시여,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제 2단. 마리아께서 엘리사벳을 방문하심을 묵상합니다.

어머니께서는 사촌 엘리사벳을 보살피려고 여행을 떠나셨습니다. 저희가 여행을 할 때도 테러리스트들의 공격으로부터 저희를 보호해주소서. 통고의 어머니, 티 없으신 마리아 성심이시여,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제 3단. 마리아께서 예수님을 낳으심을 묵상합니다.

어머니께서는 당신 아드님의 탄생에 적합한 거처를 찾을 수 없으셨지만, 어머니 팔에 안긴 예수님은 안전함을 느끼셨습니다. 저희 나라가 다시금 안전해지도록 도와주소서. 통고의 어머니, 티 없으신 마리아 성심이시여,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제 4단. 마리아께서 예수님을 성전에 바치심을 묵상합니다.

어머니의 성심이 칼에 찔리셨기에 많은 사람의 생각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복되신 어머니, 이 테러리스트들의 공격 배후에 숨어 있는 악을 보고 오늘날 저희 마음도 칼에 찔립니다. 통고의 어머니, 티 없으신 마리아 성심이시여,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제 5단. 마리아께서 잃으셨던 예수님을 성전에서 찾으심을 묵상합니다.

복되신 어머니, 예수님을 잃어버렸을 때 어머니께서는 슬픔에 젖어 그분을 찾아 헤

매셨습니다. 오늘날 미국에 가해진 이 테러로 많은 사람이 행방불명되었습니다. 그들을 찾는 사람들과 그들을 기다리는 사람들을 어머니 성심의 은총으로 도와 주소서. 통고의 어머니, 티 없으신 마리아 성심이시여,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고통의 신비>

제 1단. 예수님께서서 게세마니 동산에서 피땀 흘리심을 묵상합니다.

예수님, 당신은 십자가 상 죽음의 희생에도 불구하고 당신께로 돌아서지 않을 사람들 때문에 괴로워 하셨습니다. 예수님, 당신께로 돌아서지 않을 테러리스트들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 성심이시여,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제 2단. 예수님께서서 우리를 위하여 매 맞으심을 묵상합니다.

예수님, 당신은 뼈에서 살점이 뜯겨나가도록 매를 맞으셨습니다. 테러리스트들의 이번 공격으로 많은 사람이 다쳤습니다. 예수 성심이시여,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제 3단. 예수님께서서 우리를 위하여 가시관 쓰심을 묵상합니다.

예수님, 너무나 많은 사람이 이 무분별한 폭력 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비탄에 잠긴 이 나라를 도와주소서. 예수 성심이시여,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제 4단. 예수님께서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심을 묵상합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인내로이 받아들이신 것처럼 미국도 이 무거운 십자가를 인내로이 짊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예수 성심이시여,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제 5단. 예수님께서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박혀 돌아가심을 묵상합니다.

예수님, 십자가 상의 수난을 받아들이시는 동안 원수들을 위해 기도하신 것처럼 저희도 원수를 용서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예수 성심이시여,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영광의 신비>

제 1단.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묵상합니다.

예수님, 저희 나라가 이 비극적 참사의 폐허에서 일어서도록 도와주소서. 예수 성심이시여,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제 2단. 예수님께서 승천하심을 묵상합니다.

예수님, 당신은 죽음을 이기고 하늘나라의 왕좌에 오르셨습니다. 당신의 왕권으로 이번 참사로 죽은 모든 이를 천국으로 이끌어 주소서. 예수 성심이시여,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제 3단.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심을 묵상합니다.

우리의 몸은 성령의 성전입니다. 예수님, 모든 백성과 모든 민족에게 잉태에서 자연사에 이르기까지 생명을 존중하는 마음을 불어넣어 주소서. 예수 성심이시여,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제 4단.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하늘에 불러올리심을 묵상합니다.

하느님 앞에서 마음에 흠이 없으셨던 마리아는 영혼과 육신이 하늘로 들어 올려 지셨습니다. 마리아여, 미국도 합법화한 낙태법을 번복함으로써 하느님 앞에서 마음에 흠이 없게 기도해 주소서. 티 없으신 마리아 성심이시여,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제 5단. 예수님께서 마리아께 천상 모후의 관을 씌우심을 묵상합니다.

하늘의 옥좌에 앉아 모든 이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마리아여, 저희의 원수를 드러내 보여 주소서. 지도자들이 이 나라의 마음을 하느님 뜻에 일치시키도록 힘을 주소서. 티 없으신 마리아 성심이시여,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모린의 수호천사인 에즈라 천사가 주신 하느님의 신성한 뜻에 대한 묵상

(2008년 12월 5일 - 8일)

<환희의 신비>

제 1단. 마리아께서 예수님을 잉태하심을 묵상합니다.

가브리엘 대천사는 성부의 영원하고 신성하신 뜻과 완전하고도 완벽한 일치를 이루신 마리아 안에서 신성한 사랑이 육화되어 거하실 완벽한 거처를 보았습니다. 가브리엘 대천사는 마리아가 하느님께서 당신의 어머니가 될 분으로 선택하신 바로 그분임을 알아보고 그분께 다가갔습니다. 항상 신성한 사랑 안에서, 그리고 신성한 사랑을 통해 모든 것을 행한 마리아는 자신을 위한 하느님의 뜻을 받아들였습니다.

제 2단. 마리아께서 엘리사벳을 방문하심을 묵상합니다.

마리아는 사촌 엘리사벳을 방문하라는 대천사의 말씀에 따라 신성한 말씀을 태중에 깊숙이 모시고 여행길에 오릅니다. 마리아는 어디를 가시든, 무엇을 말씀하시고 생각하시고 행하시든, 언제나 하느님의 신성한 뜻과 완전한 일치를 이루십니다. 더욱이 이제는 신성한 뜻이 그분의 태중에 살아 계시기에, 마리아는 아무리 많은 고난을 겪어도 결코 불평하지 않습니다.

제 3단. 마리아께서 예수님을 낳으심을 묵상합니다.

마리아는 하느님의 신성한 뜻이자 말씀이 사람이 되신 분을 지극히 초라한 장소인 마굿간에서 낳으십니다. 마리아와 요셉 성인은 좀 더 마땅한 거처를 찾고자 노력하지만 거절당하는 고통을 겪습니다. 오늘날에도 신성한 뜻이 세상에서 얼마나 자주 인간의 자유의지에 의해 거절당하고 있는지 보십시오. 신성한 뜻이 세상에서 귀하게 여기는 유일한 것은 인간의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마음의 문이 얼마나 자주 하느님의 뜻을 거절하는지 보십시오.

제 4단. 마리아께서 예수님을 성전에 봉헌하심을 묵상합니다.

그날 성전에서 시므온과 안나가 아기 예수님이 그들이 오랫동안 기다려 온 바로 그 구세주이심을 알아보았던 것은 하느님의 신성한 뜻이었습니다. 하느님의 ‘베 푸시는 뜻 (Providing Will)’에 마음을 활짝 열고 있었던 그 두 사람은 아기 예수님을 구세주로서 영접하였으며, 시므온은 영원하신 말씀을 팔에 안고 예언하였습니다.

제 5단. 마리아께서 잃으셨던 예수님을 성전에서 찾으심을 묵상합니다.

하느님의 뜻은 때로는 십자가이며 때로는 승리입니다. 마리아와 요셉 성인은 삼 일 동안 예수님을 잃는 십자가의 고통을 맛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은 화를 내지 않았으며, 십자가를 받아들임으로써 그 십자가에 내맡겼습니다. 그분들은 인내하며 하느님의 뜻이 그분들에게 온전히 드러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분들이 예수님을 성전에서 찾았을 때, 비로소 승리가 찾아왔습니다.

<빛의 신비>**제 1단. 예수님께서 요르단 강에서 세례받으심을 묵상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겸손하게 요한으로부터 세례받는 일에 순종하셨습니다. 요한의 사명은 예수님께서 오시는 길을 준비하기 위해 사람들을 회개로 이끄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하느님의 뜻은, 사람들이 다시 한번 회개하고 세상에 만연한 온갖 악에 대한 보속을 바치기를 원하십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이 선교사업을 통하여 주님의 재림의 길을 준비하고 신성한 자비로 가는 길을 열어주는 신성한 사랑의 계약을 세상에 주고 계십니다.

제 2단. 예수님께서 가나에서 첫 기적을 행하심을 묵상합니다.

당신 어머니의 청을 들으신 후, 예수님께서서는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첫번째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거룩한 마리아는 하느님의 신성한 뜻과 너무나도 완벽하게 일치되어 계시기 때문에, 당신의 사랑하올 아드님께 무엇을 청해야 하고 또 어떻게 청해야 하는지를 알고 계십니다.

제 3단.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를 선포하심을 묵상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 거룩하고 신성한 사랑의 메시지들이 가는 곳마다 함께 하십니다. 이 메시지들이야말로 하나님을 만유 위에 사랑하고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는 복음 메시지의 본질이자 핵심입니다. 이 메시지들은 온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제 4단. 예수님께서 거룩하게 변모하심을 묵상합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무한하신 지혜로 거룩한 변모의 기적을 허락하셨습니다. 이는 믿음을 혹독하게 시험당하게 될 목전에 임박한 어려운 시간에 대비하여 그곳에 있던 사도들의 믿음을 확고히 해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의심하는 이 세상에 거룩한 사랑의 피난처이자 신앙의 보호자이신 마리아를 악이 창궐하는 이 시대에 피난처와 은신처로서 주셨습니다.

제 5단. 예수님께서 성체성사를 세우심을 묵상합니다.

다른 어떤 진리보다도 이 세상은 거룩한 성체 안에 살아 계시는 예수님에 대한 진리를 받아들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성체 안에 모든 진리이신 하나님의 신성한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고통의 신비>

제 1단.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땀 흘리심을 묵상합니다.

하나님의 외아드님까지도 완전히, 그리고 완벽하게 당신 아버지의 신성한 뜻에 내맡기셨습니다. 게세마니 동산에서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의 뜻을 영원하고 신성한 뜻에 내맡기셨으며,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신성한 사랑으로 내맡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임박한 운명적인 고통을 거두어달라고 성부께 청하지 않으실 수 없었지만, 결국 당신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때로는 쓰라림을 주기도 하지만, 위로를 주시지 않는 경우는 결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게세마니 동산에서 예수님이 당신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이셨을 때도 한 천사가 내려와 그분을 위로해 드렸습니다.

제 2단.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매 맞으심을 묵상합니다.

게세마니 동산에서 당신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이신 후, 예수님께서서는 결코 후회 하거나 뒤돌아보지 않으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신성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하느님의 뜻에 내맡기는 당신의 순명에 수많은 영혼들이 의존하고 있음을 아시고 매서운 채찍질을 받아들이셨습니다.

제 3단.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가시관 쓰심을 묵상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시관을 쓰실 때 당하신 모욕을 아무런 불평없이 참아내실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깊은 겸손을 통해서였습니다. 이 묵상에서는 겸손과 사랑이 함께 가장 잘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언제든지 이 박해를 중지시킬 수 있었지만 아버지의 뜻에 대한 당신의 사랑이 그렇게 하기를 허락치 않으셨습니다.

제 4단.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심을 묵상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당신 아버지께서 당신의 넘어지심과 당신이 당하신 고통 그 모두를 영혼들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심을 알고 계셨습니다. 십자가의 무게 아래, 예수님께서서는 당신 아버지의 신성한 뜻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매 발걸음은 신성한 사랑으로 더욱 깊이 들어가는 발걸음이었습니다.

제 5단.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박혀 돌아가심을 묵상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려 있게 한 것은 못들이 아니라, 매 현 순간 안에 존재하는 당신 아버지의 뜻에 대한 그분의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언제든지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 있었지만, 영원하고 신성한 뜻에 대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깊고도 깊은 사랑을 당신 성심 안에 품고 십자가에 매달려 계셨습니다.

<영광의 신비>**제 1단.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묵상합니다.**

주님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은 죄와 죽음에 대한 그분의 확실한 승리였습니다. 그 순간 그분께서는 모든 백성들과 모든 민족들에게 천국의 문을 활짝 열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공생할을 하시는 동안 당신을 반대하던 모든 이들에게 부활하신 영광스런 모습으로 나타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신

을 사랑하는 이들에게만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 성부의 신성한 뜻이었습니다. 신성한 뜻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들의 마음을 존중하며, 그 안에 거하십시오.

제 2단. 예수님께서 승천하심을 묵상합니다.

주님의 승천은 주님께서 승리에 싸여 영광스럽게 천국으로 귀환하신 일을 말합니다. 이 승리는 영원하신 아버지의 신성한 뜻 안에서 그리고 그 뜻을 통하여 이루어졌습니다. 영원한 현재인 분께서는 당신 아드님을 지금껏 어느 인간도 알 수 없었고 또 앞으로도 알지 못할 그런 지극히 순수한 사랑으로 감싸 안으셨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겸손한 탄생과 복음 메시지 전파의 장애물들, 수난과 죽음, 부활, 그리고 최종적으로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천국으로의 귀환이라는 신성한 사랑의 순환이 완성되었습니다. 매 순간이 하느님의 신성한 뜻이었습니다.

제 3단.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심을 묵상합니다.

신성한 뜻에 따라 초기 교회가 성령의 힘에 의해 갑자기 강화되었습니다. 두려움이 사도들의 마음에서 떠나서 더이상 복음을 전하는 일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느님의 신성한 뜻은 이제 이 메시지들을 통해 이기적인 사랑에 깊이 빠져 허우적거리는 세상에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다른 이들이 이 선교사업을 승인해 주기를 먼저 요구하며, 하느님의 이 손길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제 4단.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하늘에 불러 올리심을 묵상합니다.

신성한 사랑을 가장 완전하고도 완벽하게 사신 마리아는 영원하신 아버지의 뜻에 의해 몸과 영혼이 천국으로 들어 올리졌습니다. 마리아는 이미 아주 친밀하게 성부의 뜻과 일치되어 계셨기 때문에 성부의 부성적인 사랑은 더 이상 시간이나 공간의 구매를 받으며 마리아와 떨어져 계실 수가 없었습니다.

제 5단. 예수님께서 마리아께 천상 모후의 관을 씌우심을 묵상합니다.

천상에서 마리아는 천상과 지상의 여왕으로서 마땅한 유산인 왕좌에 앉아 계십니다. 그분의 왕관은 ‘성부의 영원하고 신성한 뜻’이며, 그분의 왕좌는 ‘그분의 티 없으신 성심과 모든 사랑의 성심이신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과의 일치’입니다.

부록 I

태아 목주에 관한 환시

성모님께서 하얀 옷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분 앞에는 아주 특이한 목주가 공중에 떠 있었는데 주님의 기도 목주알들은 핏방울의 십자가 모양이었고, 성모송 목주알들은 태아들이 들어있는 눈물 방울의 모습이었습니다. 십자가는 번쩍이는 금색이었습니다. 성모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아들 예수님께 찬미 드리며 이 시대의 예언자로서 왔다.”

“너희가 보고 있는 이 목주는 낙태라는 죄악을 정복할 무기를 천상이 너희에게 설명해주는 것이다. 천상은 이 큰 죄의 대가 때문에 울고 있다. 모든 나라의 역사와 미래가 하느님의 선물인 생명에 대한 이 잔혹한 행위 때문에 바뀌었다.”

“오늘날, 애처롭게도 나에게 봉헌된 평신도들에게 많은 책임이 주어질 수밖에 없다.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목주기도를 통해 원수를 정복하는 일에 서로 힘을 합할 것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사탄은 내 발현에 관해서도 분열을 일으켜 내 계획들을 방해하고 있다.”

“내 축일인 오늘 나는 내 모든 자녀들에게 내 성심 안에서 일치하라고 요청한다. 교만이 너희가 어느 발현을 따를까에 관한 문제로 너희를 분열시키지 못하게 하여라. 내 성심의 불꽃의 일부가 되어라. 사랑 안에서, 그리고 내 목주라는 기도 무기 안에서 서로 일치하여라. 너희들의 노력과 내 은총으로 낙태의 죄악을 정복할 수 있다.”

“오늘 보여준 이 모양의 목주를 널리 전파하여라.”

(1997년 10월 7일 / 거룩한 목주기도의 축일)

태아 목주에 수반된 약속

1. “내 딸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모송’을 한 번 바칠 때마다, 낙태로 인한 죽음에서 무고한 생명들 중 하나가 구해질 것임을 네게 단언한다. 너희가 이 목주로 기도할 때마다, 내 통고의 티 없는 성심이 매 순간 자행되고 있는 낙태죄를 계속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여라. 나는 내 모성의 성심을 치유해 줄 이 특별한 준성사를* 너희에게 주는 것이다.”

모린이 여쭙니다. “복되신 어머니, 아무 묵주로라도 드리는 ‘성모송’을 말 씀하십니까? 아니면 태아 묵주로 드리는 ‘성모송’을 말씀하십니까?”

복되신 어머니: “이 특별한 은총은 오직 이 묵주에만 해당한다. 이 묵주는 낙태종식을 위한 기도에 항상 사용되어야 한다. 이것을 부디 널리 알리라.”

(고통의 성모님 / 2001년 7월 2일)

*주: 가톨릭 신자들은 (이 태아 묵주는) 천주교 사제의 강복을 받아야 준성 사의 효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2. “너희가 태아 묵주기도를 바칠 때, 매 ‘주님의 기도’마다 내 슬픈 마음이 진정된다는 사실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다오. 더 나아가, 그 기도는 심판의 팔을 보류시킨다.” (예수님 / 2001년 8월 3일)
3. “이 묵주와 관련하여 내가 너희에게 주는 가장 큰 약속은 바로 이것이다: 이 묵주알들로 끝까지 바쳐진, 마음에서 우러나온 진심어린 묵주기도는 아직 내려지지 않은 낙태죄에 상응하는 징벌을 완화시킨다... ‘아직 내려지지 않은 낙태죄에 상응하는 징벌’이란 이 죄에 가담한 데 대해서 각 영혼이 받아야 하는 벌을 말한 것이다. 또한 이 죄를 받아들인 세상에 내려지게 될 더 큰 징벌에 대해서도 언급한 것이다.” (예수님 / 2001년 8월 3일)
4. “나는 사람들이 태아들을 위한 묵주기도 모임에서 정성껏 기도를 바칠 때, 그 중 한 사람만 태아 묵주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마치 그 모임에 있는 모든 사람이 태아 묵주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처럼 각자의 각 성모송을 존중해 줄 것이다.” (예수님 / 2005년 2월 28일)

태아 묵주기도를 바칠 때의 마음가짐

1. 진심으로 묵주기도를 바쳐야 합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기도를 바치려면, 마음속에 거룩한 사랑을 지니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성 토마스 아퀴나스 / 2002년 11월 2일)

“진심으로 기도를 바칠 때 너희는 내 성심 안에 있다.” (성모님 / 1994년 6월 14일)

“너희가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기도를 바칠 때, 그 기도들은 마치 베

로니카의 베일처럼, 이 세대를 바라보는 내 눈에서 흘러내리는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 하늘로 올라간다.” (예수님 / 2002년 2월 7일)

“사탄은 온 마음을 다하여 바치는 이 묵주기도의 효력을 너희가 깨닫기를 원치 않는다. 내가 단언하건데, ‘태아 묵주기도’는 생명을 구한다!” (예수님 / 2007년 10월 8일)

“내 자녀들아, 너희가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기도를 바칠 때 나의 모성적 성심이 이 모든 필요들(생명 옹호 묵주기도 지향들)을 위해 중재한다. 나는 너희를 돕기 위해 언제나 준비가 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자주 기도하여라.” (성모님 / 2011년 6월 4일)

2. 성모님의 통고의 티 없으신 성심을 기억하십시오.

“너희가 이 묵주로 기도할 때마다, 내 통고의 티 없는 성심이 매 순간 자행되고 있는 낙태죄를 계속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여라.” (고통의 성모님 / 2001년 7월 2일)

3. 사람들의 마음이 낙태에 관한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태아 묵주기도를 바칠 때 사람들의 마음이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세상의 영이 진리의 빛을 반영할 때에만 승리가 올 수 있습니다.” (성 토마스 아퀴나스 / 2007년 10월 7일)

“사랑하는 자녀들아, 만약 너희가 낙태 종식을 위해 ‘태아 묵주기도’ 혹은 ‘태아를 위한 짧은 묵주기도’를 바친다면 너희는 현 순간 내 아드님의 지극히 비통한 성심을 위로해 드리기 위해 너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 낙태죄는 오늘날 세상의 마음의 자아도취를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죄이며, 하느님의 심판을 불러들이는 죄다. 너희의 기도는 많은 이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 태내에 평화가 있을 때까지 세상에는 평화가 없을 것이다.”

(묵주기도의 동정 마리아 / 2013년 10월 7일)

“오늘 나는 우리의 하나된 성심에 봉헌된 이들은 ‘태아 묵주기도’와 ‘태아를 위한 짧은 묵주기도’의 전파에도 또한 전념해야 한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우리의 하나된 성심은 낙태가 정복되기 전까지는 절대 승리할 수 없다… 하나된 성심의 승리는 낙태에 대한 승리와 함께 일어난다. 낙태가 타파되지 않는 한 세상의 마음도 우리의 하나된 성심에 대한 봉헌을 통해 회심하지 못한다.”

(복되신 어머니 / 2013년 10월 28일)

부록 II

하나되신 성심의 짧은 묵주기도



“나는 ‘하나되신 성심의 계시’에 관해 세상을 일깨우기 위해 왔습니다. 더 많은 점들이 언급되었지만,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는 하나이며 언제나 일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십자가와 승리도 하나이며 절대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실은 ‘하나되신 성심의 짧은 묵주기도’를 바칠 때 비로소 깨달을 수 있습니다. 먼저 훗날 승리를 거두고 다스리실 예수님의 거룩한 성심과 마리아의 티 없으신 성심을 기리며 기도합니다. 그 다음 우리 주님

의 수난과 마리아의 통고를 묵상합니다. 마지막은 두 성심께 대한 보속입니다. 바로 이런 보속이 새 예루살렘의 승리의 도래를 알리게 될 것입니다.” (성 토마스 아퀴나스 / 2011년 10월 18일)

“거룩한 미사성제와 거룩한 묵주기도가 함께 심판의 저울에 큰 영향을 준다. ‘우리의 하나된 성심에 대한 신심’은 악에 대항하는 이 힘의 서열에서 세 번째다. ‘우리의 하나된 성심의 심방들’의 영성은 이 세상을 의로움의 길로 되돌리기에 충분할만큼 위대하다. 그러므로, ‘태아 묵주기도’와 함께 ‘하나되신 성심의 짧은 묵주기도’를 전파하여라. 이 기도는 많은 사람들을 이 심방들 안으로 깊이 이끄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예수님 / 2002년 9월 7일)

하나되신 성심의 짧은 묵주기도에 수반된 약속

1. “내 아드님께서는 하나된 성심에 의탁된 모든 청원에 대한 응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다.”
2. “하나되신 성심의 짧은 묵주기도를 바침으로써 (가톨릭 신자들은) 거룩한 성체를 좀 더 열렬히 모실 수 있게 될 것이다.”
3. “예수 마리아의 하나된 성심은 악에 대항하는 요새다.”

(우리의 모후 / 1996년 2월 29일)

하나되신 성심의 짧은 묵주기도

(하나되신 성심의 짧은 묵주나 일반 묵주를 사용하십시오)

제 1단. 거룩한 예수 성심을 공경하며 묵상합니다.

성모님: “내 사랑하는 아드님의 성심이 얼마나 심오하며 완전한지를 나의 자녀들이 깨닫기 바란다. 완전한 사랑과 자비와 진리의 이 그릇 안으로 이끌어 들어가거라. 그분 성심의 불꽃이 너희를 태워서, 거룩한 성삼위와 하나되는 절정으로 너희를 이끄시도록 하여라. 예수님께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예수님, 당신의 지극히 거룩한 성심에 대한 신심을 통하여 내 자녀들에게 구원을 갈망하는 마음을 내려주소서. (복되신 어머니 / 1998년 2월 7일)

주님의 기도 (1), 성모송 (3)

제 2단. 티없으신 성모 성심을 공경하며 묵상합니다.

티 없으신 성모 성심이시여, 당신은 지극히 순결한 은총의 그릇이오며, 참된 거룩함, 그리고 계시의 상징이십니다. 마리아여, 당신의 성심은 거룩한 사랑의 피난처이시며, 사악한 시대에 맞서는 표징이십니다. 사랑하올 성모 성심이시여, 이 세상의 회심과 평화가 당신께 달려 있사오니, 오직 거룩한 사랑을 통해서만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당신의 성심이 수많은 칼에 찔리셨듯이 저희의 마음을 거룩한 사랑의 불타는 화살로 찔러주소서. 티 없으신 성모 성심이시여,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복되신 어머니 / 1998년 3월 7일)

주님의 기도 (1), 성모송 (3)

제 3단. 우리 주님의 수난을 묵상합니다.

성모님: “예수님께서서는 온 인류의 죄를 위하여 기꺼이 죽음을 당하셨다. 그분은 각자와 모두를 위하여 돌아가셨다. 그분의 옆구리에서 흘러내린 끝없는 사랑과 자비의 샘물은 오늘날까지도 계속 흐르고 있다. 십자가 받아들이기를 시몬처럼 꺼리지 말아라. 많은 영혼이 꺼지지 않는 지옥불 속에서 영원히 고통받는 것은 아무도 그들을 위해 기꺼이 고통을 받으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세상 모든 감실 안에 참으로 현존하시는 영원한 희생제물이시여,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복되신 어머니 / 1998년 4월 4일)

주님의 기도 (1), 성모송 (3)

제 4단. 마리아의 통고를 묵상합시다.

성모님: “너희를 위하여 내 아드님이 고통을 받으신 것과 같이, 나 역시 지성과 마음과 몸으로 고통을 겪었다. 내 육체의 십자가는 숨겨져 있었고, 내 안에서 격렬하게 불타오르는 감성과 지성의 십자가는 짐작될 뿐이었다. 그러니 너희 역시 영혼들을 위하여 공을 쌓고, 세상에 은총을 가져오기 위하여 너희들의 고통도 가능한 한 숨겨져 있게 하여라.” (복되신 어머니 / 1998년 5월 2일)

주님의 기도 (1), 성모송 (3)

제 5단. 하나되신 예수 마리아 성심께 보속합시다.

성모님: “지금 현 순간에 거룩한 사랑에 ‘예’ 하고 응답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된 우리 성심에 보속하는 것임을 너희가 이해하기 바란다. 매 순간을 거룩한 사랑 안에서 살아가려면, 엄격한 자기 수련과 하느님의 신성한 뜻에의 내맡김이 요구된다. 너희가 재산이나 중대한 일들, 그밖의 다른 것들을 희생할 수 있다 할지라도, 자신의 의지를 포기하는 것보다 더 큰 희생은 없다. 이것이 가장 위대한 보속 행위다.” (복되신 어머니 / 1998년 6월 6일)

주님의 기도 (1), 성모송 (3)

(위 기도가 끝나면 메달에서 예수 마리아의 하나되신 성심께
다음의 기도를 바치십시오.)

하나되신 예수 마리아 성심께 바치는 기도

오, 하나되신 예수 마리아 성심이시여! 당신은 모든 은총이시고 모든 자비이시며 모든 사랑이시나이다. 제 마음을 당신 성심에 결합시키시어 모든 소원을 하나되신 성심께 봉헌하게 하소서. 특히 이 청원을 들어주시어 은총을 베풀어주시고, (예: 세상의 마음이 회심하도록...) 제 삶 속에서 당신 사랑의 뜻을 깨닫고 받아들이게 하소서. 아멘.

하나되신 예수 마리아 성심의 거룩하고 신성한 상처들이시여, 저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낙태 종식을 위한 짧은 태아 목주기도

짧은 태아 목주에 관한 환시



복되신 어머니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낙태종식을 위한 싸움에 쓰이게 될 또 하나의 중요한 무기를 가지고 왔다. 너희도 알다시피 낙태는 정복되기만 하면 세상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중대한 범죄다. 내가 지금 너희에게 주는 무기는 낙태 종식을 위한 짧은 태아목주다.”

성모님께서 하나되신 성심의 짧은 목주처럼 생긴, 1개의 주님의 기도와 3개의 성모송이 5단으로 엮어진 짧은 목주를 들어 보여주십니다. 목주알들은 태아목주의 목주알들처럼 생겼습니다.
(2013년 3월 24일)

“사랑하는 자녀들아, 내 ‘짧은 태아 목주기도’는 낙태의 오류와 태중 생명의 중요성을 알려주고, 또 어떤 식으로든 낙태에 관련된 모든 이의 마음의 치유를 청하기 때문에 중요하다. 이 기도를 매일 바쳐라.” (복되신 어머니 / 2014년 1월 29일)

짧은 태아 목주에 수반된 약속

1. “이 짧은 태아 목주기도를 진실한 마음으로 바칠 때마다 낙태를 고려하고 있는 어떤 영혼의 마음이 바뀌게 될 것이다.”
2. “이 짧은 태아 목주기도를 진실한 마음으로 바칠 때마다 어떤 영혼이 낙태의 실제 곧, 낙태는 생명을 빼앗는 행위라는 진리를 깨닫게 될 것이다.”
3. “이 짧은 태아 목주기도는 낙태죄로 인해 너무나 큰 상처를 입으신 하느님의 성심과 인간의 마음 사이의 화해의 수단이다.”

(복되신 어머니 / 2013년 3월 25일)

낙태 종식을 위한 짧은 태아 묵주기도

(5단 태아 묵주나 5단 짧은 태아 묵주를 사용하십시오)

제 1단. 하느님께서 잉태의 순간에 인간의 생명을 창조하신다는 사실을 모든 이가 깨닫게 되기를 바라며 바칩니다.

주님의 기도 (1), 성모송 (3)

제 2단. 낙태를 합법화한 모든 법의 폐지를 위하여 바칩니다.

주님의 기도 (1), 성모송 (3)

제 3단. 모든 임신부들이 몸 속의 귀중한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기를 바라며 바칩니다.

주님의 기도 (1), 성모송 (3)

제 4단. 낙태를 생각하고 있는 모든 이가 진리 안에서 양심의 가책을 깨닫기 바라며 바칩니다.

주님의 기도 (1), 성모송 (3)

제 5단. 어떤 식으로든 낙태에 관여한 모든 사람들 즉, 그 부모와 의료 서비스 종사자들, 국회의원들, 생각이나 말로, 혹은 행동의 부족으로 낙태를 지지한 이들의 내적 치유를 위해서 바칩니다.

주님의 기도 (1), 성모송 (3)

마침기도

하느님 아버지, 부디 낙태를 저지르는 이 오만한 세대를 용서하소서. 낙태가 저희 마음과 이 세상에, 그리고 당신과의 관계에 입힌 많은 상처들을 치유해 주소서. 진리 안에서 저희를 일치시키소서. 아멘. (복되신 어머니 / 2013년 3월 24일)

비통한 예수 성심



“나는 세상에 알려야 할 또 하나의 신심을 너희에게 맡긴다. 이것은 ‘비통한 예수 성심’에 대한 신심이다. ‘거룩한 사랑의 피난처’라는 내 칭호는 이 시대에 예수님께 위로가 되어드리고 있다. ‘우리의 하나된 성심에 대한 신심’은 악에 맞서는 영적인 해결책이며, 거룩한 심방들을 거쳐가는 여정은 신성한 뜻 안으로 들어가는 길이다.”

“‘비통한 예수 성심’에 대한 신심은 자신의 구원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는 영혼들과 진리보다는 오류를 받아들이는 이들이 그분의 고귀한 성심에 입히는 상처들을 아물게 한다. 예수님께서서는 다가오는 그분의 정의(심판)를 완화시키기를 원하시지만 너희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분의 비통한 성심에 대한 깊은 신심은 심판의 팔을 진정시키고 임박한 재앙을 약화시키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복되신 어머니 / 2013년 7월 17일)

비통한 예수 성심 신심에 관한 약속

1. “내 비통한 성심에 대한 신심을 지닌 이들에게는 어떤 반대에도 불구하고 진리를 지지할 수 있는 용기가 주어질 것이다.”
2. “내 비통한 성심에 대한 신심을 지닌 이들에게는 권한 남용에 의한 박해를 받을 때 의로움 안에서 인내할 수 있는 은총이 주어질 것이다.”
3. “내 비통한 성심에 대한 신심을 지닌 이들에게는 내 어머니의 티 없으신 성심을 통해 놀라운 은혜가 베풀어질 것이다. 어머니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위로하고자 애쓰는 이들에게 크나큰 고마움을 느끼시기 때문이다.”

(예수님 / 2013년 8월 1일)

화살기도

비통한 예수 성심이며,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님 / 2013년 8월 1일)

비통한 예수 성심께 드리는 청원 기도

성모님: “어려움에 처했을 때 이 기도를 바쳐라.”

티 없으신 마리아 성심이며, 당신 아드님의 비통한 성심에 대한 저의 신심을 보시어 이 청원을 (...) 들어주소서. (복되신 어머니 / 2013년 8월 4일)

비통한 예수 성심께 바치는 기도

비통한 예수 성심이며, 각 영혼이 매 현 순간 자신의 구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소서. 각 영혼에게 그가 어떻게 당신으로부터 멀어지는지, 그가 얼마나 당신의 성심을 아프게 해드리는지를 보여주소서. 모든 영혼을 진리의 빛 안으로 데려가시어 그들이 비통한 당신 성심을 더이상 아프게 해드리지 않게 하소서. 아멘. (복되신 어머니 / 2013년 7월 17일)

비통한 예수 성심께 바치는 봉헌기도

사랑하올 예수님, 저는 온 마음으로 당신의 비통한 성심을 달래드리기를 갈망합니다. 당신은 매 현 순간 진리의 타협과 권한 남용 때문에 지옥에 떨어지는 영혼들을 보고 계시나이다. 제가 매일 지는 크고 작은 십자가들을 당신의 비통한 성심에 박힌 가시들과 상처에 대한 보속으로 받아주소서. 사람들의 양심을 바로 잡아 주시어 그들이 진리 안에서 살게 하시고 어떤 지위에서든 정당하게 권한을 행사하게 하소서. 아멘. (예수님 / 2013년 7월 26일)

국가 지도자들이 진리 안에서 살기를 지향하는 기도

지극히 비통한 예수 성심이며, 모든 나라의 지도자들을 가엾게 여기소서. 그들이 진리 안에서 살고 권력을 남용하지 않도록 도와주소서. 국민의 복지를 위해 나라를 다스리도록 그들에게 영감을 주소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존재하는 전쟁이 세상으로 흘러넘치지 않게 하소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 평화의 승리를 위해 바치는 저의 기도와 희생을 받아주소서. 아멘. (복되신 어머니 / 2013년 9월 9일)

국가 지도자들에 관한 분별을 청하는 기도

지극히 비통한 예수 성심이며, 당신의 자비로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은총을 내려주소서. 이 은총을 통해서 모든 지도자의 속임수를 꿰뚫어볼 수 있도록 도와주

소서. 특히 그들이 자신의 권력으로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는지, 어떤 종류의 죄든 죄를 묵과하는지, 또 자신에게는 없는 권한이나 권력을 주장하는 것은 아닌지 깨닫게 해 주소서. 제가 진리보다 직함을 더 중요하게 여기지 않게 하소서. 사랑하옵소서. 예수님, 부디 당신이 제가 가장 먼저, 최우선으로 따라야 할 권위이시라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소서. 아멘. (복되신 어머니 / 2014년 8월 13일)

비통한 예수 성심께 바치는 짧은 묵주기도에 수반된 약속

“오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지만, 이 짧은 묵주기도를 자주, 그리고 진심으로 열렬히 바치면 인간 사건들의 행로를 바꿀 수 있다. 이 기도는 진리를 드러내고, 어떠한 권한 남용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다. 이 기도는 충분히 많은 사람들이 바치기만 한다면 하느님의 정의(심판)를 진정시키는 도구가 될 것이다.” (복되신 어머니 / 2014년 2월 4일)

비통한 예수 성심께 바치는 짧은 묵주기도

(어떤 5단 묵주나 짧은 묵주를 사용해도 좋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내 아드님의 성심에 상처를 입히는 진리의 타협과 권한 남용의 죄가 천상과 지상 사이의 심연을 빠르게 넓히고 있다. 어떤 묵주론도 다음 지향들을 위해 주님의 기도 한 번과 성모송 세 번을 바쳐라.”

제 1단. 인류가 선과 악의 차이에 대한 진리를 깨닫기를 바라며 바칩니다.

주님의 기도 (1), 성모송 (3)

제 2단. 교의인 신앙의 진리가 인류를 만족시키기 위해 타협되는 것이 아니라 옹호되기를 바라며 바칩니다.

주님의 기도 (1), 성모송 (3)

제 3단. 종교 지도자와 세상 지도자들 모두 죄를 죄로서 인정하고, 절대 ‘특별 이익 집단’에 협조하거나 영합함으로써 죄를 지지하지 않기를 바라며 바칩니다.

주님의 기도 (1), 성모송 (3)

제 4단. 어떤 지도부도 종교의 자유를 빼앗지 못하기를 바라며 바칩니다.

주님의 기도 (1), 성모송 (3)

제 5단. 종교 지도자와 세상 지도자들이 모두 자신의 이익이나 권력, 혹은 무질서한 권한을 위해서가 아니라 착한 목자로서 자신의 양떼의 복지를 위해 일하기를 바라며 바칩니다.

주님의 기도 (1), 성모송 (3)

마침기도

사랑하올 예수님, 부디 이 기도를 당신의 지극히 비통한 성심을 괴롭히는 것들에 대한 보속으로 받아주소서. 이 짧은 목주기도로 당신의 정의의 심판을 가볍게 해주소서. 아멘. (복되신 어머니 / 2014년 2월 3일)

‘티 없이 깨끗하신 마리아 성심을 여는 열쇠’ (p.8) 에 대한 약속과 은총

성모님께서는 이 기도를 열심히 바치는 이들에게 당신의 거룩하신 아드님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네 가지의 약속과 은총을 받아내셨습니다:

1. 미지근한 사람이라도 이 기도를 열심히 바치면, 열렬한 신앙으로 더욱 타오를 것이다.
2. 이 기도를 바치는 죄인에게는 자신의 신앙에 걸림돌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은총이 주어진다.
3. 진심 어린 지향으로 이 기도를 바치는 사람은 모두 온갖 역경 속에서도 평화를 얻을 것이다.
4. ‘신앙의 보호자이신 마리아’를 부를 때, 사탄은 무력해진다. 나는 이 칭호로 나를 부르는 모든 이에게 신속하게 도움을 주기에, 온갖 의심과 유혹이 이 이름 앞에서 사라져 버린다.

“나는 너를 통해 세상에 알려진 계시의 완전함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 왔다. 천상이 알고자 했던 모든 것은 ‘티 없는 마리아 성심을 여는 열쇠’ 즉, ‘신앙의 보호자인 마리아’에게 바치는 기도와 함께 시작되었다. 이 단순한 기도는 영혼을 우리의 하나된 성심의 첫째 심방 곧, 티 없는 마리아의 성심 안으로 들어오게 한다. 믿음이 보호되고 사탄이 패배하면, 영혼은 하나된 성심의 첫째 심방인 거룩한 사랑에 마음을 연다.”

(예수님 / 2000년 10월 15일)

부록 III

양심 성찰에 관한 메시지

“철저한 양심 성찰로 하루를 마감하여라. 진실하게 너희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참된 통찰력의 은총을 청하여라. 그러면 그 은총이 주어질 것이다.” (예수님 / 2001년 6월 11일)

“나는 매일의 양심 성찰이 얼마나 중요한지 영혼들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영혼은 오직 거룩한 사랑을 실천하는 데 있어 자신의 잘못과 결점을 깨닫을 때에만 거룩함에서 진보할 수 있습니다. 성덕의 삶은 바로 이렇게 스스로를 바로잡음에 달려 있습니다.” (성 토마스 아퀴나스 / 2010년 8월 31일)

“거룩함의 완덕에 이르고자 진심으로 노력하는 영혼은 어렵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그의 노력을 진리에 봉헌해야만 한다. 먼저 너희의 결점들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그 결점들을 극복할 수 없다. 그러므로, 자기 만족을 피하여라. 양심 성찰을 통해 겸손이 너희를 나에게 더 가까이 이끌도록 기도하여라. 이것이 더 깊은 거룩함으로 가는 길이다.” (하느님 아버지 / 2018년 7월 5일)

이 책에 실린 묵주기도 묵상들은 목격증인 모린 스위니-카일을 통하여 예수님과 성모님, 천사들이 메시지 형태로 주신 것입니다. 모든 메시지들은 www.HolyLove.org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거룩한 사랑의 선교회 (Holy Love Ministries)

37137 Butternut Ridge Rd. North Ridgeville, OH 44039

(영) 440-327-8006 www.holylove.org

(한) 440-657-0113 www.holylovekorean.com

매일 하루의 삶을 돌아보는 양심 성찰

1. 사랑을 사랑으로 갚았는가? (나에 대한 하느님의 사랑을 되돌려 드렸는가?)
2. 내 소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생각과 말로 남의 허물을 들추어냈는가?
3. 십계명을 거스르며 남의 권리를 침범했는가?
4. 일상생활 속에서 거룩한 사랑과 거룩한 겸손의 표양이 되고자 노력했는가?
5. 거룩한 사랑과 거룩한 겸손이 나를 더 깊은 성덕들 - 단순함, 신중함, 인내, 용기, 끈기 - 로 이끌도록 하였는가?
6. 메시지를 입술로만 살고 있는가? (겉으로 남에게 보이기 위하여); 아니면 메시지를 마음속에 새겨 마리아를 통해 예수님과 내적 친교를 나누고 있는가?
7. 거룩한 사랑의 메시지를 전파하기 위하여 세상 - 사람들, 장소, 물건 - 을 동원했는가?
8. 시간이 나를 지배하도록 만들었는가, 아니면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 시간을 지혜롭게 활용했는가?
9. 가톨릭 신자라면, 가톨릭의 법규를 알고 이에 순종하는가?
10. 나에게 주어진 소명에 충실한가? (결혼생활, 수도생활, 독신생활 등)
11. 가톨릭 신자라면, 성사를 잘 활용했는가?
12. 내 삶 속의 십자가를 나를 위한 하느님의 뜻의 일부로 수락하고 받아들였는가, 아니면 십자가를 거부함으로써 영혼들을 구할 수 있는 은총을 상실했는가?
13. 어떤 특별한 은총을 받았을 때, 그것을 필요 이상으로 남에게 퍼뜨리며 나를 드러냈는가? 아니면 이런 은총을 받을 자격이 없음을 깨닫고 하느님께 감사를 드렸는가?

(복되신 어머니 / 1998년 7월 20일)